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UCI]I804:11046-000000521492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

-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수업 제안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연 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

-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수업 제안 -

지도교수 김 영 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06 월 17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연 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박연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미 가 인

심사위원 이 인 영 인

심사위원 강 여 치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년 6 월 17 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국문 요약 ····· iii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2-1.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 ····· 4
   2-2.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 ····· 8
   2-3. <원천강본풀이> 연구 ····· 11
3. 연구 대상과 방법 ····· 15
   3-1. 자기표현 글쓰기 ····· 16
   3-2.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 19
   3-3. 수업 설계와 실행 계획 ····· 21

Ⅱ.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 31

1. <원천강본풀이> 텍스트 분석 ····· 31
   1-1. '오늘이'의 여정 ····· 33
   1-2.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 ····· 38
   1-3. '오늘이'의 통곡 ····· 44
2. <원천강본풀이>의 교육적 가치 ····· 48
   2-1. 자기 탐색의 여정 ····· 48
   2-2. 만남과 성장 ····· 49
   2-3. 통곡의 재인식 ····· 5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수업 설계와 실행 ····· 52
1. 수업 설계 ····· 52
2. 실제 수업 운영 ····· 61
2-1. 구전이야기 연행 ····· 61
2-2. 활동지에 대한 학생들 반응 ····· 66

Ⅳ. 학생 글 분석을 통한 자기표현 글쓰기의 효과 ····· 73
1. 갈등의 직면 : 방황하는 '나' 발견 ····· 73
2. 감정의 발산 : '통곡'의 실현 ····· 79
3. 주체성 회복 : '자기'에 대한 위로 ····· 83

Ⅴ. 결론 ····· 90

참고문헌 ····· 93
부록: 학생 글 자료 ····· 99
ABSTRACT ····· 12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쓰기 교육이 기능적·도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자기표현 글쓰기의 교육적 유익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왔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참여형, 통합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구안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을 제안하여 주체적 글쓰기, 자기를 위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글쓰기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시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의 고등학생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글쓰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억압되어 온 것, 잃어버린 것들을 찾도록 하는 교육이 자기표현 글쓰기의 역할일 것이다. 즉 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존을 영위하기 위한 기회로써 자기표현 글쓰기는 존재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치관을 조명하며 성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원천강본풀이> 이야기를 활용한 이유는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오늘이의 모습이 현재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투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이가 '만남'을 통하여 '관계 맺음'을 해 나가는 과정은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찾는 여행을 떠날 동력이 된다. 둘째, '오늘이의 통곡'은 학생들에게 슬픔을 풀어내는 과정이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들이 가장 몰입하여 이야기를 들은 대목도 오늘이가 울며 문지기에게 서러움을 풀어놓는 장면이었다. 학생들은 구전이야기의 흐름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자기표현 글쓰기 활동을 하며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며 갖게 되었다.

중·고등학교의 문학 영역 교수·학습 방법은 개념과 내용파악에 집중된 읽기 중심 교수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작품이 상상과 사유를 하게 하기보다 학생들에 의해 재단되고 박제된다. 각종 생활감정이 발달하는 청소년기는 정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지만 이를 위한 기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신이 가진 감정의 원인을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감정 자체를 발산해보는 기회가 되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본 연구는 2018년 12월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시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이 수업의 피드백을 토대로 2019년 6월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완되어 진행되었다.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활동지의 질문들을 통하여 <원천강본풀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울고 있는 오늘이에게 편지쓰기'를 하는 활동이다. 활동지는 크게 내용 이해와 자기 탐색 질문으로 나누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내 안에 울고 있는 오늘이에게 편지쓰기' 활동은 자기와의 화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발산되어야 하는 감정들과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기도 하였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내면에 이질적 감정들을 토로하거나 보듬는 과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공통적인 것은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면을 다룰 겨를 없이 입시 위주의 학습 분위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표현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느낌'이라고 전했으며 '마음이 한결 낫다'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교훈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는 수업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구전이야기 연행과 그에 따른 모둠활동을 계획하였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이야기에 반응했으며 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오늘이'를 발견하였다. '답'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품게 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것이 필자에게 부여된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은 입시 위주 글쓰기의 관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으로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열어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글쓰기'가 학습자의 내면에 주목하기보다 글쓰기의 규범과 관습, 표준화된 틀을 잘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문제 풀기를 위한 지문 읽기와 논술 교육은 '내가 쓰지만 내가 없는 글'을 강요한 측면이 있으며, '내가 읽으면서도 내 머리로 사유하지 못하는 글'이라는 아이러니를 창출[1]했다.

새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하여 "배움으로 즐기는 행복교육"[2]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며 실질적인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쓰기'를 통하여 학습과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수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제출한 원고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교정 부호를 써서 첨삭을 하는 교수자의 역할 그 너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평가의 혁신을 실현하고자 '과정 중심 평가'를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 학생들의 서열 정보 이외에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3]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그에 맞는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으로 제공한다고 하여도 단위 학교 수

---

1) 김영희, 「'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대학 신입생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11권0호, 한국작문학회, 2010, 74면.
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2015-74 [별책 5]』, 교육부, 2015.
3) 최숙기,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작문 평가 도구 개발 방안」, 작문연구39, 한국작문학회, 2018, 393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준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가 없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입시 중심의 수업 분위기를 타파하기 어렵다. 필자는 구전 이야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체적 글쓰기, 상실한 자기를 위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글쓰기수업이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학을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는 고등학생들에게 필자로서 주체 의식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에 상품화·도구화 된 영역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자존을 무너뜨릴 때에도 '나는 존엄하고 유일한 존재로서 존재할 뿐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힘을 가진 쓰기 주체는 '자기'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며 자신만의 글쓰기를 향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기표현 글쓰기의 교육적 유익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단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 후 반성하며 다짐하는 식의 글쓰기로 구현되어 다시금 글쓰기가 형식화, 도식화 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가 이러한 단조로운 글 구성을 탈피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입시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 고등학생들에게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용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어과 쓰기 교육도 설명, 설득과 같은 언어 사용 목적이 분명한 글을 쓰는 활동에 치중되어 있지만 의사 전달 목적의 쓰기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느끼는 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자기 표현적 글쓰기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조명하여 성찰을 이끌어 내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함의[4]를 지닌다.

학생들은 자기표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이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5]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며,

4) 김정란,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비판적 검토와 지도 방향 모색」, 『작문연구』20, 한국작문학회, 2014.

5) 해당하는 고1 국어의 교수·학습 방향은 다음과 같다. 1)-③ 다양하고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어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운용한다. 4)-① 학습자가 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는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3항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셋째, 교훈적 문학교육을 넘어 주체적 해석과 창작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기회가 된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승해야하는 것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와 닿지도 않는 텍스트를 붙잡고 애써 교훈을 찾아내는 견강부회식 적용 수업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 담긴 무궁무진한 세계를 보여주며 그것과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가운데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연도 펼쳐낼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역시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수용하고, 자신이 상상하거나 경험한 것에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게 작품을 생산[6]하는 학습을 위하여 설정되었다. 필자가 제안하는 구전 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는 단순히 하위 영역을 결합한다고 해서 학습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전 이야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쓰기 교육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로 시행될 경우 문학과 쓰기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된 통합적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기 이해와 자기실현은 자기표현을 적극적·지속적으로 해낸 이들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쓰기 자체가 활동 수행을 통해 서서히 배움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습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 사회·문화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학습 자료나 제재의 선정, 학습 활동 설계,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과 활용, 수업 과정에서의 발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성 함양을 고려하며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③ 국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성찰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인성을 기르도록 교수·학습을 운용한다. ④ ‘국어’ 수업에서 배운 정의적인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여, 인성 요소가 지식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자에게 내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6)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09 고시)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시간 확보가 필요한 작업이다. 글쓰기 교육의 주류인 독자 상황을 충족시키는 글쓰기, 즉 수사적 접근법[7]이 여타의 방법들을 압도 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고민을 표현해보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도일 수 있으나, 사회 입문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돌봄의 성찰적 글쓰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과 반성에 머무르지 않는 사회적 실천의 첫 걸음"[8]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글쓰기가 쓰기 주체를 소외시키지 않으며 필자의 삶과 글쓰기가 유리되지 않는 쓰기 교육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삶과 소통할 수 있는 쓰기 교육을 지향하는 바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

'자기표현 글쓰기'에 대한 교육적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은 여전히 입학이나 취업의 상황에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한, 합격을 위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주체로서의 회복, 나아가 자기 탐색을 하게 하는 '쓰기 교육'은 실제화·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선행된 연구들은 자기표현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표현 글쓰기란 글쓰기의 '주체'를 강조하는 선행 연구의 견해와도 일정 부분은 유사할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경험 재구성하기, 주체의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아우르고자 한다.

---

7) 이재승은 작문(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법(지배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체 또는 재구성하는 글). 표현주의 접근법(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심미적 인지적 윤리적 성장을 지향하는 글). 수사적 접근법(독자 상황을 충족시키는 글) 중 수사적 접근법만이 비대해짐을 진단하였다. (이재승,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작문에 대한 세 가지 가치론적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8, 2008, 186면.

8)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 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238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최숙기[9]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자기 표현적 쓰기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며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Britton[10]의 글을 유형화 하는 방법으로 자기 표현적 언어가 가장 자아에 근접하고 사적인 성격임을 밝혔다. 즉 학생 필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글쓰기 양식이며 계속해서 표현되는 양식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다. 엄격한 제한이 없는 글쓰기로 이러한 작문 교육의 가치로는 첫째, 작문 교육과정과 실제 작문 교육 간의 원활한 연계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학생 필자의 정의적(affective) 쓰기 요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학생 필자의 쓰기 주체로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넷째, 학생 필자의 긍정적 정서(emotion)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를 밝혔다.

'나에 대한 글쓰기'의 수업 사례연구로서 박현이[11]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하게 글쓰기 주체 스스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글쓰기 자체를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흥미롭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법은 글쓰기 화두와 관련하여 반드시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1단계는 타인과의 소통과정, 2단계는 글쓰기 주체 자신과의 소통과정으로 1단계에 얻은 성과물을 개별 글쓰기에 적용하여 메타비평능력을 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담화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과정으로 1,2 단계의 글쓰기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자신감 회복 및 글쓰기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9) 최숙기,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 『작문연구』5, 한국작문학회, 2007.
10) 글을 유형화 하는 방법은 1975년 Britton의 『쓰기 능력의 발달(The development of writing ability)』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아래의 표는 최숙기(2007)에서 재인용하였다.

<표 1> Britton(1975)의 분류

문학적(poetic) 글쓰기	자기 표현적(expressive) 글쓰기	의사소통적(transactional) 글쓰기
보다 공적임	보다 사적임	보다 공적임
의미는 함축적임	자아(the self)에 가까움	의미는 명시적임
소설, 시	편지, 저널, 개인적 에세이, 자서전	설명문, 논설문, 과학 보고서

11)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논문은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두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기억과 고백을 통하여 자기 반성, 타자와의 소통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은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발상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자기표현 글쓰기의 성찰적 특성을 재맥락화 하여 '자기 탐색'이 '자기에의 배려'로 나아가기 위한 글쓰기를 연구한 김영희[12]는 자기표현 글쓰기에서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글쓰기의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는 강의 계획과 운영방안, 수업사례를 제공하였다. 자기 안의 이질성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작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수자는 이 과정에서 섣불리 치유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아야 하며 피드백 과정에서도 학생의 자존을 배려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표현 능력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면 글쓰기 교육의 정체성이 인문학적 기반 위해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수업의 전반부에는 자기 탐색에 집중하는 글쓰기를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타자를 존중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학술적 글쓰기를 배치하였다.

이양숙[13]은 '자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세계 이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맺음 등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사유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서사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에서 글쓰기 주체는 은폐되거나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자아를 구축한다. 자기서사가 이루어질 때 '과거'는 '현재'의 자아상을 볼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하여 글쓰기 주체의 자신감이 회복된다면 이는 쓰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임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체를 구성적으로 보며, 학습방법도 주체 인식 방식에 따라 구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일한 관점의 연구로 김미란[14]은 글쓰기 교육에서 표현주의에 대한 관심이 소원했던 것을 지적하며 표현적 글쓰기(혹은 사적 글쓰기)를 통하여 성취한

12) 김영희, 앞의 논문.
13) 이양숙,「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5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4) 김미란,「표현주의 쓰기 이론과 대학의 글쓰기 교육」,『반교어문연구』35, 반교어문학회, 201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쓰기 능력이 학술적 글쓰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피터 엘보우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표준화·체계화된 글쓰기 수업을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자기 표현 방식과 자기 목소리 신뢰하기→자기의 통념 확인하고 수정하기→타자와 연대하기'를 중심축으로 하는 16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주체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배치하였다. 주체 세계에 대한 재조정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자기표현 글쓰기가 대학 글쓰기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김정란[15]은 중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자기표현 글쓰기를 형식과 내용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도방법과 전략에 대한 지속적 탐구를 강조하였다. 자기표현에서는 쓰기 내용을 생성하는 주체가 자신이며 결국 자기 경험과 사유에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학생 필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 진술 중심의 정보 전달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경험의 가치를 네 가지 수준으로 설명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과거 회상에서 나아가 주체의 잃어버린 경험을 회복할 수 있으며 풍요로운 미래를 기획할 기회가 주어짐을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가치로 두었다.

이정찬[16]은 자기소개서와 성찰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존의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은 일회적인 쓰기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인 쓰기 과정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의 조정, 글쓰기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글쓰기의 결과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조정, 조율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순환적인 과정을 제안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표현 글쓰기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주체성의 회복, 새로운 정체성의 탐색을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 수업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치중되어 있

15) 김정란,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비판적 검토와 지도 방향 모색」, 『작문연구』20(20), 한국작문학회, 2014.
16) 이정찬,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의 비판적 검토 - 수사(修辭)와 탐구 그리고 정체성 -」. 『작문연구』, 한국작문학회, 201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는 빈약하다. 비교적 입시의 부담이 적은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로의 입문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자기표현 글쓰기의 기회가 의미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쓰기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재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2-2.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

구비문학은 국어과 교육에서 위축되어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구비문학의 연행성이 간과되었으며 현재도 기록된 고전 시가와 소설이 문학교육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구비문학 갈래 중에는 판소리, 설화가 대다수이며 무가는 구비문학교육 제재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구비문학교육에 대한 반성과 교육 영역으로서의 인식 확장과 성찰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으며 구비문학 특정 제재를 선정하여 새로운 교육방법과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하기 위한 연구로 구비문학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전보다 활발하게 연구된 구비문학 교육은 김기창[17]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구비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혔으며 개화기, 독립운동기, 교수요목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시기별 구비문학의 전개 방향을 정리하였다. 김기창은 통시적으로 구비문학 교육에 접근하여 시기별로 보여준 데에 의의가 있다.

나경수[18]의 연구는 '문학교육이란 예술교육의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비문학 교육의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국어교재 속에 들어있는 문학작품이 예술로서 가르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비문학이 가진 예술성과 현장성, 창작과 향유의 일체성, 표현을 통한 세계의 내면화와 창조의 현실화 등 구비문학 교육의 당위

17) 김기창, 『한국 구비문학 교육사』, 집문당, 1992.
18) 나경수,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5-2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성을 촉구하였다.

구비문학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 연구들도 다양하다. 권오경[19]은 구비문학의 현대적 설계를 위하여 체험 중심, 웹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제안하였다.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 작품 현황을 파악한 이경우[20]는 구비문학이 기록문학과 상대적인 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저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발견하였으며 구비문학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될 수 없게 된 실정이지만 구비문학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문학의 갈래 항목에서 구비문학이 독립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신원기[21]의 연구에서도 설화 교육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설화의 창조성, 의미층위, 표현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둘째, 설화가 함의하는 시대성을 지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설화의 흥미와 교훈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세부적인 내용의 초점은 다르지만 구비문학이 갖는 특성을 토대로 기존의 문학교육이 재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조윤형[22]도 구술성을 중심으로 구전설화의 교육적 가능역(可能域)을 연구하였다. 설화는 다양한 장르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수용 및 생산자의 접근성도 크고 상상력의 개입을 통한 재구성이 자유로움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설화교육, 구비문학교육과 관련한 상세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이인경[23]은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이 작품서사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교육자의 서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을 반성하며 설화 작품을 문학치료학적으로 해석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김영희[24] 는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 치유의 방향성을 올곧게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

---

19) 권오경,「구비문학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탐색」,『어문학통권』83, 한국어문학회, 2004.
20) 이경우,「고등학교『문학』교과서의 구비문학 교육 연구」.『과학과 문화』2(3), 2005, 19-33면.
21) 신원기,「설화(說話)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국어교육』 120(0), 한국어교육학회, 2006,
22) 조윤형,「구전설화의 교육적 가능역(可能域) 연구 -그 소통의 "구술성"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 2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75-211.
23) 이인경, 「<구복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고전문학연구』 32(0), 2007, 26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기 위해 이야기의 소재나 단편적인 모티프에 초점을 둔 도구적 활용을 넘어선, '이야기 힘'의 재발견을 주장하였다. 구전이야기 텍스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 대안적 이야기의 구성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행의 맥락을 되살린 구전이야기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를 구안하였다.

오세정[25]은 최근 양산된 설화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화의 교훈성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간직하고 전해온 사람들의 삶, 사유, 욕망 등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설화교육 연구는 기존 해석이나 개별 텍스트의 가치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적 전제를 세우고 텍스트 해석을 통해 가설적 전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있어서도 인물, 사건을 다룰 때 획일화·정형화를 경계해야 하며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그것을 위한 관점의 다양화와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해숙[26]은 설화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수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야기판의 전통적인 기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입말과 문자에서 영상으로까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확대되는 시대에서 설화문학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구술 서사 자료를 활용한 교육에서 연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구전 이야기들이 쓰기 주체들의 재사유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김영희[27]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전이야기의 연행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과 글쓰기 주체의 자기 탐색을 위한 글쓰기 모형 설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참고하여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

24)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25) 오세정,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 : 설화교육 연구의 경향 검토와 방향 모색」,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26) 서해숙, 「멀티미디어시대 설화문학의 교육적 재구성 방안」, 『남도민속연구』26(0), 남도민속학회, 2013, 170면.
27)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3.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는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이다. 제주도 신화는 특성에 따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로 분류[28]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신격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 제의를 하지 못하고 보조적 삽화로서 불리거나 현재 굿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원천강본풀이>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중간에 위치한 신화인 당신화로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출생을 주도한 신이 없고 자생적으로 솟아난 신들이라는 것이다. 주인공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화소는 신화시대의 제주도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낳고 길러주는 어머니로서 대지의 개념이 나타나므로 여성 원리의 신화를 뜻한다.[29]

<원천강본풀이>는 크게 무속신화로서의 작품 연구와 현대적 변용 양상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작품연구로, 장주근[30]에 의해 <원천강본풀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원천강’이라는 어원은 오행상서(五行相書)들을 저술한 당대의 복자(卜者)이자 도해역서(圖解易書)인 『원천강화주역』(袁天綱畵周易)을 말하는 것 같다고 밝혔으며 원천강에 등사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불교의 복합 보급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제주도본풀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현용준은 <원천강본풀이>가 『조선무속의 연구』 상편에 채록되어 있지만, 현재 무속 제의에서 연행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대상 신의 직능도 알 수 없음을 밝혔다.[31] 그래서 이를 본풀이로 보지 않았으며 내용이 다른 두 편의 설화가 같은 이름으로 채록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이수자[32]는 두 가지로 채록된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의 내용 비교를 통하여 박봉춘본을 <원천강본풀이>의 원래적 자료로 확인하는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신화가 내포해야 하는 일반적 요건을 갖춘 박봉춘본에 비해 조술생본은 이야기 자체의 내적 요소가 신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 21대째인 박봉춘 심방에 비해 조술생은 당대 입무한 심

2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29) 권복순, 「고전문학 :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0), 2015.
30)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362면.
31)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1면.
32)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태학사, 1998, 788-79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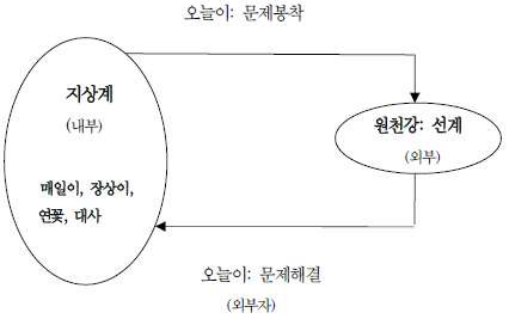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구복여행담의 기원신화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김혜정[33]은 '원천강'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박봉춘본과 조술생본 각편에서 원천강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시대별 무당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무당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원천강본풀이>기 굿에서 사라졌다고 보았다. 또한 구복여행담인 민담에서 신화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미약한 편이다. 이 밖에도 신화의 기능적 측면의 연구로 고은임[34]은 '오늘이'의 역할과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신화적 사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원천강으로의 여정은 오늘이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서사가 아니며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신화적 사유가 내포되어 '세상살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지상의 존재 오늘이가 선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강이라는 이계를 경험한 오늘이가 다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상과 이계의 상보적 관계[35]와 유대의 필연성을 드러내어 뜻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에 <원천강본풀이>는 문화 콘텐츠 계발과 연관하여 논의되기도 하였다.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원천강본풀이>는 문화콘텐츠 소스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문학 영역 교육의 확장과 더불어 콘텐츠 생산을 통한 매체 통합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오락의 결합인 '에듀테인먼트'[36]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작품이라는

33)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2, 2010, 251-277면.
34)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 2010.
35) 고은임은 각 세계의 존속을 위해 두 세계의 유대는 필연적이며 내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샤먼의 매개를 통하여 각 세계의 외부 요소가 내부적 문제들을 치유함을 밝혔다. 아래 그림은 고은임(2010)에 제시된 문제 해결과정이다.



36)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오락성,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것이 이미 여러 콘텐츠를 통해 확인된 작품이기에 다매체 시대의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석[37]은 영상매체를 통한 논술지도의 전략을 제시하며 <오늘이>를 활용하였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어린이용 판본 <오늘이>를 <원천강본풀이>와 비교한 연구한 김권호[38]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읽기 3-1』에 각색되어 실린 <오늘이>와 어린이용으로 개작되어 10편 넘게 출간된 동화, 그림책 판본을 비교 검토하여 서사무가의 가치와 매력을 바르게 전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채록본에 필적할 만한 신화적 의미, 서사적 일관성, 여러 모티프의 상징 등을 제대로 담아낸 판본이 드물다는 점과 현대적 변용이라는 이름으로 생략, 부적절한 각색이 이루어져 신화적 가치를 훼손한 것을 지적하였다. 원본에 충실한 내용과 그 본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바람직함 문학 수업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권복순[39]은 <원천강본풀이>의 덧입힌 부분을 걷어내고 신화의 본디 모습을 추적하여 신화의 원형을 재구하고자 하였다. <원천강본풀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주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신가에 속하는 자료로서 주인공이 땅에서 솟아나며, 이름이 오늘이라는 독특한 화소는 북방계와 다른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원천강본풀이>의 채록본이 한 편밖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 상황에 따라 내용의 유사성을 지닌 '구복여행담'과의 비교하여 왔지만 두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여정의 지향점이 다르며 만난 인물들도 다른 것을 근거로 원래 있던 신화 내용에 구복여행담의 내용이

도전성 등의 속성을 학습활동에 재미 요소로 부가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교육과 대화형 오락의 2요소를 균형있게 접목시킴으로써 학습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여러 형대와 교육적 요소가 복합된 교육체제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교육학회,『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

37) 김명석,「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우리문학연구』28, 2009; 김명옥,「원천강본풀이 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그림책 중심으로-」,『동화와 번역』22(0), 2011; 정제호,「서사무가의 콘텐츠 활용 유형과 스토리텔링 양상」,『일본학연구』, 52, 2017; 이지연,「<무대에서 꽃피는 우리 신화 _ 오늘, 오늘이의 노래>의 무대 시각화 연구 : 공간 디자인 및 캐릭터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학위논문, 2018.

38) 김권호,「교과서 수록본「오늘이」의 비판적 검토」,『우리말교육현장연구』6(1), 2012.

39) 권복순,「고전문학 :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배달말』56(0), 배달말학회, 201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삽입되어 재편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제주도 고유 신화소의 뼈대에 구복여행담과 남성 중심의 북방계 신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옥황 신녀, 절 등 도교와 불교적 색채가 덧입힌 결과가 일제시대 채록본 <원천강본풀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이가 시간과 대지의 신으로서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은 신화의 연속성을 지니지만, 구복여행담이나 북방 신화의 영향은 단절성을 불러왔다. 그러나 권복순은 '단절과 연속을 겪는 것이 입말로 전승하는 구비문학의 특성인 만큼 입말로 전승하는 신화의 역사성'을 드러냈다.

이후 권복순의 연구[40]에서는 인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신화에 반영된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였다. '오늘이'의 명칭 때문에 시간의 신으로 보고자 한 이수자[41]의 논의에 더하여 통합적 접근으로 신화에 반영된 우주관을 탐구하기 위하여 각 인물의 기능과 오늘이의 여정에 따른 수평과 수직 이동을 분석하였다. 정체성 찾기라는 수평 이동의 목표와 신직 좌정이라는 수직 이동의 목표를 밝혔으며 오늘이의 성격이 해원의 기능과 천계왕래의 기능에서 드러나는데 오늘날 천신굿의 거리과장에서 무당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무당의 기능이 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오늘이는 인간을 비롯한 범우주적 존재들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원시 애니미즘 사고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시간의 상징성, 인물 분석, 현대적 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까지 이루어졌으며 이밖에도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42],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 전래동화교육의 방법 연구[43] 등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자료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1차 원형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 되어 공연매체[44]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와 교육이 연계된 연구는 초

40) 권복순,「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의 인물 기능과 우주 인식」.『국제언어문학』(35), 국제언어문학회, 2016.
41) 이수자, 앞의 논문.
42) 조홍윤,「< 원천강본풀이 >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남도민속연구』23(0),남도민속학회, 2011.
43) 오판진.「학습자 구연을 통한 전래동화교육의 방법 연구: <오늘이>를 중심으로」,『한국초등교육』23(4), 184-202.
44)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공연작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김민수,「<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에서 인용하였다)

	작품명	장르	제작진	제작년도
1	<춘하추동 오늘이>	어린이음악극	극단 신화세상	2004
2	<오늘이>	어린이음악극	국립국악원	200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등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천강본풀이>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고 있다.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신화의 상징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국어 수업 현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화적 상상력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는 활동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흐름 속에서, 구전 이야기들이 창작의 재료가 되고 내면을 자극시키는 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과 더불어 어떻게 구전 이야기를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고전문학이 교훈적, 윤리적 가치를 전달한다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주제와 교훈을 찾는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사유와 상상력을 불어넣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창작의 보고로 역할 하도록 돕기 위해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자기표현 글쓰기를 실현하는 수업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표현 글쓰기와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영역 성취기준과 문학영역 성취기준을 통하여 해당하는 성취기준들이 수업 현장에서 <원천강본풀이> 텍스트와 어떻게 결합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를 수업 설계와 실행 계획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3	<시간의 꽃, 오늘>	창작발레	김순정발레단	2008
4	<내 안의 원천강 오늘이>	연극	극단 덩이	2008
5	<오늘, 오늘이>	국악뮤지컬	극단 타투	2009
6	<오늘, 오늘의 노래>	인형극	극단 로.기.나래	2011
7	<내 이름은 강(江)>	연극	김광보연출/고연옥 작	201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1. 자기표현 글쓰기

논술 교육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적 글쓰기의 확대는 학습 주체의 표현 능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표현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표현의 욕구와 의지, 자기 안의 언어들에 집중하기보다 타자의 언어와 타자의 표현에 얽매여 글쓰기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글쓰기는 결국 자기 표출이며 도구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쓰기를 억압받고 있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문제가 된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기 이야기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도록 표현을 복원시키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쓰기 교육에서 필요하다. 학습 주체가 스스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외면할 수 없는 교육적인 의무인 것이다.[46]

자기표현 글쓰기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표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 글쓰기 교육에서는 인지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 방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쓰기 교육의 실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표현주의 쓰기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식한 배경에는 Peter Elbow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47] Peter Elbow의 표현주의 글쓰기 이론은 형식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에 대한 반박에서 비롯되었다. 형식주의는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전범을 모방하는 의미전달자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 것과 필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비판받았다.

고전적 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쓰기 과정 이론인 Flower와 Hayes의 인지주의 글쓰기 과정[48]은 이후 많은 쓰기 과정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서 지면의 한계 상 글쓰기 과정은 단계적으로 실릴 수밖에 없으며 쓰기 절차가 분절적으로 제시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인지주의 이론은 개요 작성과 같은 계획하기 단계

45)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10면.
46) 김영희, 위의 논문 211면.
47) 김현정, 「표현주의 이론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과 의의 - Peter Elbow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15면.
48)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Flower,L & Hayes,J.R.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4), 1981, 37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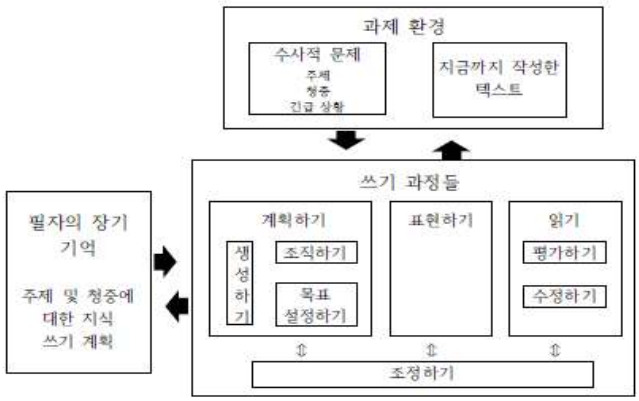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즉 글쓰기 과정을 여전히 정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 하에서 나타난 표현적 글쓰기 이론은 글쓰기 수업 현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숨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lbow[49]는 글쓰기에서 주체의 중요성, 개인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유쓰기(free writing)를 강조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드백을 강조하였는데 동료 반응을 통해 실제 독자의 관점에서 자기가 쓴 글을 살펴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고쳐 써 보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글쓰기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담화의 관습과 규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 내부의 의미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주체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표현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이재승[50]은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위치는 어디이며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기 숙고적 글쓰기를 통한 내적 성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표현주의 쓰기 이론은 필자 지향의 글쓰기가 강조되면서 글쓰기의 의사소통적 측면이 약화될 수 있는 점, 글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내의 인지적, 정의적 행위를 과학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미란[51]은 표현적 글쓰기의 성취에 대한 Peter Elbow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



49) Peter Elbow, 『힘있는 글쓰기』, 김우열 옮김, 토트, 2014.
50) 이재승,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51) 김미란, 「표현주의 쓰기 이론과 대학의 글쓰기 교육」, 『반교어문연구』35, 반교어문학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면서 표현적 글쓰기와 한국의 대학 글쓰기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현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본 모형을 제안하였다. '자기표현 방식과 자기 목소리 신뢰하기→ 자기의 통념 확인하고 수정하기→타자와 연대하기'를 중심축으로 16주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수업 내용은 주체 인식을 강화하고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학술적 글쓰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나은미[52]는 표현주의 관점에 토대를 둔 글쓰기 교육의 유용성과 의미를 고찰하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방안을 제안했다. 사적 체험을 글감으로 하는 쓰기 활동을 통하여 글쓰기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글쓰기 효능감 및 글쓰기의 생활화를 이끌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글쓰기를 체화하기 위해 흥미를 갖도록 기여하는 수업을 구안하고자 했다.

김현정[53]은 국내에서의 표현주의 글쓰기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Peter Elbow의 이론을 바탕으로 표현주의 이론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답을 찾아가기 위한 교육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이 연구는 국내 글쓰기 환경을 고려하여 글쓰기 교육에서의 활용 방법과 표현주의 이론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은 표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학습자에게 쓰기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 필자가 주체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한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도록 돕는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감정을 수용하도록 하며 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억압을 벗어나는 경험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부인하고 있던 감정과 상처를 끌어안고 수용하기도 한다. 국어과 쓰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글쓰기 활동은 형식화된 글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 자신의 내면보다 타자의 욕망을 알아내고 만족시키는 것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스스로를 위해 억제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경험은 필연적이다.

2013.

52) 나은미, 「표현주의에 토대를 둔 대학 글쓰기 수업의 한 방안」. 『한국어학』65, 한국어학회, 2014.

53) 김현정, 「표현주의 이론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과 의의 - Peter Elbow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2. 구전 이야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삶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자전적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개인의 삶과 관련한 쓰기의 주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야 할 것이다.[54]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재나 교수 자료에서부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전적 텍스트 지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구전 이야기는 자기 탐색에 적합한 자료이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이미 경험된 수업 방식으로 인해 고전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고전은 일단 재미없다고 단정 짓는 경향은 작품의 주제와 어휘를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초래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표현 글쓰기를 하기에 앞서 구전이야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것은 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문학을 향유하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희[55]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구전이야기 연행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부분을 교육적으로 자원화 할 것인가, 구전이야기의 주제와 의미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비평적으로 재사유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영역 간 교섭과 통합을 지향하되 심리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체계화 ·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교수자 스스로가 심리치료 전문가를 자처하기보다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학습자를 고려한 신중한 수업이 될 것이며 교육이 곧 치유이거나 치유가 곧 교육이 아님을 상기하게 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수업을 구안하였다.

문학 작품은 1차적으로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내용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 교육이 '책'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은 글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며 '행위'와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54) 이은미,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자전적 쓰기 교육의 방향 연구」.『리터러시연구』16,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179면.

55)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김영희[56]의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에서는 구전이야기가 갖는 낭만적 이상을 뛰어넘어 연행과 전승의 여러 국면을 살펴보고 공동체의 정치적 기획에서 벗어난 구전이야기 연행의 탈주적 움직임까지 고찰하였다. 김영희는 구전이야기의 연행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의 다원·다중성과 복수성이 '닫힌 공동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공공영역의 장을 열어 보이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술 담화의 다성성(多聲性)과 정체성 수행 발화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반항적 언술들이 연행의 틀 내에서 공동체 경계를 재배치하는 이질적 효과를 창출하게 되면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 연구는 국어 교과 수업의 구비문학 교육에서 연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연행은 단일한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으며 연행의 이질성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다원적인 이야기들이 생산되기도 한다는 특징은 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답과 교훈 찾기에서 벗어나 저마다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하게 들린 지점을 표현하기도 하고 몰입되는 내용에 공감하기도 하며 구전이야기를 통하여 일어난 감정, 정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수[57]는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을 통하여 구비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밝혔다. 구전 이야기는 듣고 말하며 작품의 내면화를 통한 재창조를 이룬다. 학생들을 종이에 적힌 텍스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전해들은 이야기에 자기 체험을 반영하게 된다. 단순히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표현 글쓰기를 해야 하는 필자에게 구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세계의 내면화와 창조의 현실화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구전 이야기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명현[58]은 고전소설의 정전화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광범위한 동질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한편, 현실비판·근대정신 등의 문학사적 가치와 교훈적 · 윤리적 주체의식을 강조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56)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29면.
57) 나경수,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5-25면.
58) 이명현, 「고전소설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글쓰기」, 『우리문학연구』48, 우리문학회, 2015, 142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전 중심의 문학교육은 텍스트에 대한 엄숙성과 훼손 불가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끓고 있는 '이야기'의 다양한 층위를 감상하기 어렵게 한다. 이명현은 고전소설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글쓰기를 제안하여 학습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는 '듣기·말하기', '읽기', '문학', '문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단순히 구전이야기의 구술성에 주목하여 한 영역으로 국한시켜 학습 가능한 차원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영역을 가로지르고 아우르면서 어떻게 구전이야기 연행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59]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구전이야기를 듣고 자기표현 글쓰기로 나아가는 학습은 학생들이 문학과 대화해야 하는 과정이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텍스트를 수용, 해체, 변형하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연행될 때마다 재창조되며 전승되고, 화석화된 텍스트를 듣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자기화 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신화의 본원적 기능과 의미를 살릴 수 있다.[60] 이러한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구비문학 교육의 설계가 논의되어야 하며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시도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3-3. 수업 설계와 실행 계획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시기와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2차시씩 수업이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3일에 총 2차시(한 차시 수업 당 50분)로 진행된 수업은 천안의 H 여자고등학교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교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이었기에 학급의 학생 일부는 결석을 하여 18명(1개 학급)

59)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189면.
60) 서해숙, 「멀티미디어시대 설화문학의 교육적 재구성 방안」, 『남도민속연구』26(0), 남도민속학회, 2013, 150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규 수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학교 수업에 참여 하고 있었으며 수능 후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모둠 활동보다는 개별 쓰기 활동과 개별 피드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2019년 6월 3일에는 현재 충청남도의 D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9명(여18명, 남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2차시(차시 당 50분)의 수업을 시행하였다. 해당 학교는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이며 비평준화 지역으로 상위 50%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다. 학급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으며 대체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속한다. 연구를 진행한 1학년은 현재 국어 과목 1학기 수행평가로 '나의 꿈과 만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서전 쓰기 및 진로 시간 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진로'와 '나'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해당 학급의 특이 사항으로는 지체 장애가 있어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학생이 한 명 있었으며, 모둠 활동을 진행할 때에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포함하여 5-6명씩 6모둠으로 묶어 구성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안에도 '이야기' 즉 글로 '쓸 거리'가 흐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 구전 이야기를 교육현장으로 끌어와 교육제재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며, 이 연구 또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다. 시간적·공간적 여건과 제약으로 인하여 1,2,3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충분한 차시를 계획하여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입시로의 첫 시작을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사회로의 첫 시작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앞으로의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 연구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8년 12월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시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 수업의 피드백을 토대로 2019년 6월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연행할 때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야기판의 생동감이 떨어졌던 점과 학생들에게 다채롭게 작품을 이해하고 자기 경험과 연결하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단계적 질문 없이 직접적으로 자기 경험을 쓰도록 글쓰기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활동지의 질문들을 구분하였고, 이야기 연행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초중등 공통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자 모국어 사용자가 증진해야 하는 국어능력의 총합적 수렴점[61]을 마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과서, 교육과정, 고등학교 고1『국어』11종 교과서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차시별 지도안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표현 글쓰기가 실현될 수 있는 해당 단원을 조사하였고, <원천강본풀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구전 이야기를 활용한 문학교육이 필자 주체를 회복하는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으로 나아가는 수업을 실현하고자 차시별 수업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활동지의 질문들을 통하여 <원천강본풀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울고 있는 오늘이에게 편지쓰기'를 하는 활동이다. 활동지는 내용 이해와 자기 탐색 질문으로 나누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내 안에 울고 있는 오늘이에게 편지쓰기' 활동은 자기와의 화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발산되어야 하는 감정들과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국어교과는 교육내용의 명료화와 성취기준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영역[62]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성취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영만[63]은 수많은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는 지식의 구조와 그 탐구원리를 배움으로써 그것이 비춰주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익함을 밝혔다.

아래는 고1『국어』교과서에 성취기준 3항이 반영된 단원의 학습목표와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쓰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④항을 보면,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소재를 탐색하거나 일상의

61) 허연주·박형준,「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고등학교 1학년『국어』교과서 11종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215면.
62) 국어과 교육과정 하위영역은 현재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나누어져 있다.
63) 이영만,『통합교육과정』, 학지사, 2001, 69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성을 살려 글을 쓰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기준 3항을 바탕으로 한 11종의 『국어』 교과서[64] 학습활동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매개요소로 제시되는 글의 종류는 모두 '수필'이다. 학생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수필로만 제시한 것은 학생들에게 비슷한 유형과 구조의 글을 쓰게 하는 단조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표1] 쓰기 성취기준 3항과 통합한 문학 단원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65]

교과서	단원	제재	학습목표	학습활동
비상 교육(박안수)	3-(4)	나희덕 「반통의 물」	4-1. 교술 갈래로서의 수필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4-2.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 수필에 드러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수필의 특징 파악하기 2. 자신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보다. 3. 자신과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미래엔(신유식)	8-(2)	-	2. 사회·문화적 가치가 담긴 책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자.	1. 책을 선정하자 2. 선정한 책을 읽고 독서일지 쓰기 3. 경험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지학사(이삼형)	6-(2)	나희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2.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글을 감상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2. 주요 소재인 '가시'의 의미 파악하기 3. 자신의 일상에서 삶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 써 보기 4. 노래로 감상하고 의미를 파악하여 영상편지 작성하기

64) 11종 『국어』 교과서는 대표저자와 출판사로 나타내었다. 금성(류수열), 동아출판(고형진), 미래엔(신유식), 비상교육(박영민), 비상교육(박안수), 좋은책 신사고(민현식), 지학사(이삼형), 창비(최원식), 천재교육(이성영), 천재교육(박영목), 해냄에듀(정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금성(류수열)	4-(3)	김소영「최초의 경험」 이기호「우리 시대의 지식인」	3-1.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치 있는 경험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다. 3-2.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3-3.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다.	1.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살펴보자. 글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평가해보자. 글의 개성적인 면을 찾아보자 2. 자신의 경험 중 인상적인 장면을 성찰해보고 이를 토대로 글로 작성해보자. (짝과 상호 검토 포함)
천재 교육(이성영)	11-(1)	하종오「원어」	1-1.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평가한다. 1-2.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 작품 속 상황 정리하기. 화자의 말의 이유와 마음 추론하기. 2. 더불어 살기 위한 덕목과 태도 정리하기, 다른 사람에게 취했던 태도나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3.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영상편지 만들기
동아출판(고형진)	6-(3)	장영희「하필이면」	3-1.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3-2. 일상의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쓰기의 즐거움을 느낀다.	1. 글의 내용 정리하기 2. 글쓴이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의 변화 알아보기 3. 글쓰기 과정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창비(최원석)	2-(4)	김창협「보지 못한 폭포」	4-1. 교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4-1. 문학 작품은 구성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4-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 글쓴이의 경험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하기 2. 글쓴이의 깨달음을 파악하고 내 생각 말하기 3. 교술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4.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해냄 에듀(정민)	2-(4)	성석제「소년 시절의 맛」	4-1.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4-2. 작품의 구성요소들 중심으로 하여 교술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4-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작품의 내용정리 및 이해하기 2. 글쓴이의 글쓰기 방법 파악하고 앞의 소설과 비교하기 3. 제재 중 하나를 골라 수필 창작하기
좋은책 신사고(민현식)	3-(4)	박지원「상기」	4-1.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4-2.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 글에 드러난 작가의 경험과 정서 파악하기 2. 작가가 경험을 통해 성찰한 바 파악하기 3. 이글에 사용된 표현방식 파악하기 4.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서 이 글이 지닌 개성 정리하기 5.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 표현하는 글쓰기
비상(박영민)	2-(4)	윤대녕「한 그루 나무처럼」	4-1. 교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4-2.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수필의 내용 파악하기 2. 소재의 의마와 내용 전개 방식의 효과 알아보기 3. 수필의 특성 정리하기 4.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수필 써보기
천재교육(박영목)	10-(3)	박완서「오해」	3-1. 경험과 성찰이 담긴 수필을 감상할 수 있다. 3-2.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글의 내용 정리하고 '오해'를 중심으로 깨달음 정리하기 2.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효용 파악하기 3.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모둠원과 바꾸어 읽기)

65) 허연주·박형준,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고등학교 1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쓰기영역 3항'은 '문학 영역 성취기준 2항과 4항'[66]에 통합되어 문학의 수용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까지 고려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한 후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결과로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학생들을 적극적인 문학 향유자[67]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어교육에서 쓰기는 의사소통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며, 인성교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어과 쓰기 교육에서 자기표현 글쓰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사유의 기초를 마련[68]하도록 적용된다면 학습자는 쓰기 주제에 대하여 탐색하고 선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자는 자기 탐색을 통하여 쓸 내용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인성교과의 영역을 아우르는 수업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당면한 쓰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 지향의 학습 활동으로 인식되어온 쓰기 교육 현장 속에서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기'에 이해를 바탕으로 성찰, 자아와 타자의 관계맺음까지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2007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읽기3-1』에 각색되어「오늘이」로 수록되었던 바 있다. 또한 어린이용으로 개작되어 십여 편의 동화, 그림책이 출간되는 등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활용한 자료들을 감상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표현하도록 구성하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69] 이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년『국어』교과서 11종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224-226면.

66)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7) 허연주·박형준,「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고등학교 1학년『국어』교과서 11종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68) 이양숙,「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50, 2011, 177면.

69) 서해숙,「멀티미디어시대 설화문학의 교육적 재구성 방안」,『남도민속연구』26(0), 남도민속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 개념과 내용파악에 집중되어 있어 읽기 중심의 교수법으로만 활용된다. 문학작품들이 상상력을 자극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이냐 아니냐에 따라 버려지고 선택받으며 입시 속에 갇힌 문자가 되어 버렸다. 70)

고등학교 국어수업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문학작품이 활용되기에는 형식화·획일화 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정서는 자아체험을 통해 각종 생활감정(life feeling)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지만71) 고등학생들은 정서를 오롯이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실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는 전 생애 가운데 어떤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정체감의 혼란이다.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는 것이 청소년기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비교적 보호된 세계인 아동기를 지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충동과 요구들 속에서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도 많은 시기를 보내며 청소년기에는 정체감 위기가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것이다.72)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토대 위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타자화의 전략적 산물로서의 ‘정체성’, ‘정체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73)이 전제되

회, 2013, 152면.

70) 이명현은 고전 소설을 통한 자기표현 글쓰기를 연구하면서 교실에서 고전소설에 내재된 ‘이야기’의 다양한 층위를 감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 내용에 대한 낱말 풀이와 주제 찾기가 우선이며 학생들은 고전소설을 감상하지 않고, 지문 속에서 정답을 찾는 현상이 나타남을 언급하면서 학습된 고정관념을 전복하기 위한 수업을 제시하였다. (이명현, 「고전소설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글쓰기」, 『우리문학연구』48, 우리문학회, 2015.)

71) 한상철 외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2014.

72) 한상철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필수적인 교육내용이 ‘자아 정체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아 정체감이 인간의 전생애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중심적인 발달과업임을 밝힌 Erikson의 주장을 근거로 자아 정체감은 인간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과업으로서 생애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달 과업을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가 청소년기임을 밝혔다. (한상철, 『청소년학 :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04 참조)

73) 김영희, 「‘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대학 신입생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은 고등학생들의 자기 탐색과 자기표현을 위하여 <원천강본풀이>라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화의 주인공을 통해 오늘의 '나'에 대한 존재적 진실을 찾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탐색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만남', 부모로부터의 분리로 인한 '통곡'의 내용은 글쓰기 주체인 고등학생이 자기 경험을 재사유하며 몰입하기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어떻게 수업에서 적용가능한지와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 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 이야기의 서사적 흐름을 제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① 옥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판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이 여자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니 자신은 강림들에서 솟아났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② 학이 날아와 날개로 덮어주고 야광주를 물려주어 오늘가지 살아왔다고 한다.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③오늘이가 떠돌다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에게 가니 오늘이에게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려준다. 오늘이가 원천강 가는 법을 물으니 백사가의 별충당에 가면 글 읽는 도령이 있고 그에게 물으라고 하였다.
④ 장상이란 도령에게 오늘이는 길을 묻는다. 장상 도령은 가다보면 연화못이 있고 거기에 있는 연꽃나무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라고 가르쳐준다. 장상 도령은 왜 자신이 밤낮 글만 읽어야 하는지 까닭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다.
⑤오늘이는 연화못가의 연꽃나무를 찾아가 부모국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 연꽃나무는 삼월이 되면 꽃이 피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팔자에 관해 알아봐 달라면서 원천강 가는 길은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쳐준다.
⑥ 오늘이가 대사를 만나 길을 물으니 대사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승천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며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청수아당을 건너가게 해준다. 원천강은 매일이를 만나 물어보라고 알려준다.
⑦ 오늘이가 매일을 만나 길을 물으니 자신의 항상 글 읽는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하

『작문연구』11권0호, 한국작문학회, 2010, 56-57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며, 원천강은 울고 있는 옥황시녀를 만나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한다.

⑧ 오늘이가 시녀 궁녀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다. 옥황의 시녀였지만 죄를 지어 물을 다 퍼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바가지에 구멍이 난 처지를 설명한다. 오늘이는 바가지 구멍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니 그들은 원천강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⑨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했으나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소리에 문지기의 마음이 움직여 이 사실을 부모에게 가서 전한다.

⑩ 부모는 오늘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오늘이는 부모를 만나 지난 일들을 말한다. 부모는 자신들이 오늘이를 낳던 날 옥황상제가 불러 원천강을 지키게 되었으나 항상 오늘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⑪ 부모는 춘하추동 사시절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오늘이는 여정에서 부탁받은 일들을 말하니, 부모는 그 해결책을 알려준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나무는 상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도 만발할 것이며 대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야광주를 두 개 주면 용이 될 것이며, 오늘이는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⑫ 오늘이가 돌아오는 길에 각각의 대상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한다. 매일과 장상은 만나 부부가 되어 만년영화를 누리고 대사는 오늘이에게 야광주 두 개를 주어 용이 되어 승천한다. 연꽃나무는 상가지를 꺾어 오늘이에게 주니 가지마다 꽃이 핀다.

⑬오늘이는 신녀로 화하여 인간 세상에 강림해서 원천강을 등사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Ⅱ.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1. <원천강본풀이> 텍스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오늘이의 여정'과 '만난 존재들과의 관계 맺음', '오늘이의 통곡'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오늘이는 원천강에 등사하여 직능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자체가 입사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물의 성장과 입문의 과정이 담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탐색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유효한 감상의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는 쉽게 읽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오늘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은 오늘이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 역시 독자가 동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탐색의 기회를 얻게 된다.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 아이가 들판에서 솟아남으로 시작한다.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가 그 아득함을 짊어지고 발걸음을 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남'이 시작된다. 하염없이 홀로 글을 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장상과 매일이, 해마다 한 송이 꽃만 피우는 연꽃 나무, 세 개의 야광주를 물고도 승천하지 못 하는 큰 뱀과 우물물을 퍼내지 못해 우는 옥황 시녀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오늘이는 이 존재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이들의 고민을 듣고 그 삶의 의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돕는다. 그러나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곳,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부탁을 받은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강'으로 들어가는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수 만 리 먼 길을 떠나 고생 끝에 왔다고 해도 닫힌 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오늘이는 통곡했다. 삶의 서러움과 고독함, 저 문 너머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발현된 것이며, 울음은 그 다음 단계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존재들과의 관계 맺음'을 텍스트 분석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자기 정체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나 자신만 탐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결핍이 있지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로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관계'의 축복이다. 홀로는 고독하고 슬픈 존재일지 모르나 '나'를 열어 세상과 만날 때 그 관계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 '벗' 보다는 '경쟁자' 곁에 두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는 흔들리는 존재들에게 '오늘이'와 다양한 존재들의 만남은 '연대'한다는 것의 가치를 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의 통곡'을 핵심어로 삼아 수업에서 울음을 표출하는 과정을 초점화한 것은 우리가 '울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원천강을 가면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난 오늘이다. 가장 너그럽게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인 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한 오늘이는 혼절하며 울기 시작한다. 이 역시 십대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고등학생들이 사회로의 입문을 준비하며 겪는 과정 중 하나이다. 모든 것을 책임져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모라는 존재 역시 나의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그들 역시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때로는 부모도 가혹한 세상과 같은 어른일 때도 있음을 겪는 청소년들은, 그렇기에 절실히 '나'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음을, 내 마음처럼 될 수 없음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원천강본풀이> 속 '오늘이의 통곡'이 이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되어 한바탕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울음이 '이번 생은 망했다'[74]는 체념과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사회로의 입문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부실하게 다루어졌던 '쓰기 교육'의 역할을 든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대학 합격 그 너머의 삶, 오늘, 그리고 내 과거가 갖는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74)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신조어는 학력, 재력, 권력에서 우위를 갖지 못해서 늘 피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자조적인 표현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이런 현상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 구조에 의해 학대 당한 결과 가지 개념이 약화돼 자조적 태도를 형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재현, "혐생·이생망 등 청년들의 자기 비하 언어", 중앙일보, 2019. 03. 2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1. 오늘이의 여정

오늘이의 여정을 보면 여정의 단계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등장하고 오늘이는 각 단계의 만남을 통하여 원천강에 이른다. 조홍윤[75]은 오늘이가 시간의 신으로서 신성을 획득한 내력을 푸는 서사라면, 오늘이의 여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존재들이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시간'과 관련하여 가늠해볼 수 있음을 말하였다. 오늘이가 마주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인 동시에 그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였다.

옥갓튼계집애가적막한드를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는어떠한아해냐뭇더라
나는강님드를에서소사낫슴니다
성으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냐
나는성명도몰으고아모것도몰읍니다[76]

적막한 들에서 솟아난 오늘이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이름도 모르는 채로 과거와 단절된 시간 속에 존재한다.

박이왕의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오날이가안이냐,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몰음니다,너의부모국은원텽강이라[77]

---

75) 조홍윤, 「< 원천강본풀이 >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0),남도민속학회, 2011. 414면.
76)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92면.
77)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위의 책 292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과거와 단절되어 있는 오늘이는 백씨부인을 만나고 자신의 근본과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조홍윤[78]은 <원천강본풀이>에 감추어진 '시간'의 의미가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삶 차원의 시간'이 어떠한 원리로 흘러가는지,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오늘이는 여행을 통하여 '관계맺음'을 해 나간다. 장상과 매일이, 연꽃나무와 뱀, 선녀와의 각각의 여정을 통해 그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여정에서 마주친 존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홀로 길을 떠난 오늘이는 그러한 다양한 존재들과 차례로 만나면서 세상 만유(萬有)가 자기 존재를 끌어안은 채 고독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한 만남과 교감은 그가 존재의 근원적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79]

권복순[80]은 오늘이의 여정을 서사의 진행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었다.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그것인데 먼저 수평적 이동에서는 해원(解冤)의 기능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상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의 원(冤)을 풀어주는 기능을 겸하는데 수평 이동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들의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주는 것은 오늘날 굿을 연행할 때 무당이 행하는 기능과도 유사하다. 현재의 샤머니즘 기능은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범위로 축소되었지만 애니미즘 시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해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차 여정은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 천계를 왕래하는 수직이동의 길이다.

>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 원텬강을직히라고하니
>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
>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78) 조홍윤, 「< 원천강본풀이 >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0),남도민속학회, 2011.
79)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80) 권복순,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 의 인물 기능과 우주 인식」. 『국제언어문학』(35),2016, 83-107, 88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너를보호하고잇섯다
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앗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81]

오늘이는 수평,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옥황은 가장 높은 신으로서 오늘이 부모에게 명령을 내리고, 오늘이 부모는 오늘이에게 신의 공수를 내린다. 오늘이가 세운 일차 여정의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이며 그 과정에서 이차 목표인 신적 과정의 목표가 발생한다. 오늘이가 신녀가 되는 과정은 천계 승천의 여정을 거쳐 획득되는데 오늘이는 자발적으로 문제를 떠안고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제주도 고유무속신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화생관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권복순의 연구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수평과 수직 이동을 통하여 오늘이는 해원의 기능과 천계 왕래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여정가운데 만나는 존재들을 통하여 오늘이가 범우주적 차원에서 신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동흔[82]은 <원천강본풀이>는 민담 중에서도 무척 유명한 <구복여행>과 내용이 통함을 밝혔다. <구복여행>은 한 총각이 복을 타기 위해 낯선 세계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의 문제를 풀어주고 자기도 발복한다는 이야기로서, 서사 구조만 놓고 보면 <원천강본풀이>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 다 원형적인 이야기이므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복여행>이 오랜 역사를 지닌 민담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어왔음을 생각할 때 <원천강본풀이>가 그 서사 구조를 수용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선후보다 질적 속성임을 드러냈다. <원천강본풀이>는 신화적 상징으로 가득한 원형적 화소를 통해 존재와 운명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완벽한 신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유정월[83]도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구조에 주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81)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8면.
82)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68면.
83) 유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한국고전연구』 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두 텍스트에서 주인공은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왕복 여정을 보여준다. 어떠한 결핍으로 여행을 결심한 인물이 최종적으로는 여행의 결과 결핍이 충족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정월은 이 두 텍스트의 시퀀스를 여행 동기 → 출발 → 왕로 → 도착 → 귀로 → 결과의 통합적 관계로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2]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여정 비교[84)]

통합적 관계	<구복여행> 설화	<원천강본풀이>
동기	석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나이도 부모도 몰라서 '오늘이'라 불리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출발	석승은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구하러 떠났다.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부모를 만나러 떠났다.
왕로	한 여인을 만나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1)	장상이를 만나 왜 책만 읽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1)
	노인을 만나 집에 있는 꽃이나 과수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2)	연꽃을 만나 꽃이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2)
	이무기를 만나 용이 못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3)	큰 뱀을 만나 용이 못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3)
왕로		매일이를 만나 왜 책만 읽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4)
왕로		선녀를 만나 뚫어진 바가지를 기워주고 원천강 입구에 도착했다.
왕로		문지기가 가로 막았으나 부모를 찾아온 연유를 말했다.
도착	서역국에 도착하여 질문의 해답을 들었다.	원천강에 도착하여 부모를 만나고 질문의 해답을 들었다.

84) 위의 논문, 250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귀로	이무기가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게 하였다. (해결3)	큰 뱀에게 여의주 하나만 가지게 하였다. (해결3)
	식물의 뿌리 근처 금은보화를 파내게 하였다. (이것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해결2)	연꽃의 상가지를 꺾게 하였다. (이것을 얻어 신녀가 되었다.) (해결2)
	과부는 처음 만나는 외간 남자와 결혼하라 하였다.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였다.) (해결2)	장상이와 매일이를 혼인시켰다. (해결1)
결과	혼인도 하고 재물도 얻어 잘 살았다	신녀가 되어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하였다.

그러나 두 텍스트에서 서사 중간의 여정은 유사하지만, 여행의 동기와 여행의 결과는 다르다. 구복여행 설화의 최종 상황이 개인의 '복'으로 종결된다면 오늘이의 최종 상황은 '인간에서 신녀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상태 변화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자질의 변화를 동반한다. 원천강으로 가는 여정과 원천강이라는 공간에 도달하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가 표층 구조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늘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자기 존재를 알고자 함이다. 자의에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 놓여진 자기를 인식하는 것, 곧 '1차적 정체성 찾기'[85]가 오늘이의 여정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이는 부모를 찾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서 여정을 그치지 않는다. 여행 중 부탁받은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난다.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오늘이는 잃어버렸던 과거를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1차적 정체성 찾기의 여정에 이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을 위해 세상으로 걸어가는 2차적 자아정체성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85) 김민수,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2.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한 조력자들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존재들인 동시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관계의 확장을 통해 인식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단절되어 있던 관계와 관계가 이어지면서 멈춰있던 시간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오늘이는 내적고민에 휩싸여있는 존재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늘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질인 동시에 오늘이 이야기를 형성하는 '상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 텍스트가 풍부하게 수업시간에 풀어지기 위하여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의 의미를 짚어보며 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오늘이가 여정에서 만난 존재들(조력자들)의 순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원천강본풀이>의 조력자 등장 순서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조력자 순서
백씨 부인
글만 읽는 장상(남)
상가지만 꽃이 피는 연꽃나무
구슬이 세 개인 큰 뱀
책만 읽는 매일(여)
구멍이 난 바가지로 물을 푸는 시녀궁녀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오늘이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는 상태이다. 이때 '백씨 부인'과의 만남은 오늘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리저리뎬기다가
박이왕의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오날이가안이냐,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몰습니다,너의부모국은원텬강이라
원텬강은엇찌하야갑니까[86]

이렇게 백씨 부인을 만난 후 오늘이의 여정은 시작된다. 백씨부인은 오늘이라는 존재를 알아봐 준 역할을 하며,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이 또한 이것의 가치를 알기에 여행의 끝에 백씨 부인을 찾아가 야광주를 선물한다. 백씨 부인은 오늘이의 여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의 역할[87]을 하는 것이다.

오날이는백씨부인을맛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뜻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엿다[88]

장상도령은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는 여정에서 최초로 만난 존재로서 별층당에 앉아 매일 글을 읽으며 사는 것에 괴로움을 느낀다. 밤낮으로 책을 읽지만 성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 지식이 쓰인 적이 없는,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쌓는 존재이다. 또한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에 갇혀있는 존재이다.

한데원텬강에가거든
웨,내가밤낫글만닑어야하고
이성밧그로외출치못하는지
그리유를물어다가전하야줍시요[89]

---

86)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2면.
87) 김민수,「<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32면.
88) 299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는 청수 바다를 건너가서 만난 '매일'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녀의 삶도 그녀의 이름처럼 똑같이 되풀이되는 매일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다.[90]

매일이는저번의청의동자모양으로
별층당우에안저,글을닑고잇더라
인사를마치고,부모국원텬강의
길인도를청하니,쾌로히승락하고
원텬강에가서,자긔의항상
글만닑고잇는팔자를무러다달나하고
오날이에게부탁하다[91]

조홍윤은 이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별층당'의 존재는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버린 사람들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기 자신에게만 침잠해 들어가도록 하는 단절의 공간'으로 보았다. 자기만의 별층당에 눌러앉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는 것으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둘이 혼인하는 것으로, 서로의 결핍을 채우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론적인 고민은 결코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책을 읽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으로 결핍을 채워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오늘이가 만난 연꽃나무와 대사(大蛇)는 '집착과 욕심' 자체가 결핍이 되어 고민하는 존재들이다.

나는겨울에는움이뿌리에들고
정월이나면몸중에들엇다
이월이되면가지에가고,삼월이나면꼿이되는대
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89)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3면.
90) 조홍윤, 「< 원천강본풀이 >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0),남도민속학회, 2011, 421면.
91)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팔자를물어줍소[92]

연꽃나무에게는 그나마 상가지에 맺힌 꽃을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해마다 반복된 온전하지 못한 개화(改化)앞에서 현재 자신이 피워낸 상가지의 꽃은 위로인 동시에 붙들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꽃의 문제 해결 방법이 상가지에 핀 꽃을 꺾어내는 것임을 미루어볼 때, 연꽃나무는 다른 가지들에서도 꽃이 피도록 균형적인 양분을 공급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가지의 꽃에 몰두하며 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현재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며, 그것을 놓아주어도 괜찮음을 말하고 있다.

청수바다의 대사(大蛇)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에 해결 방법도 유사하다.

나의부탁도하나드러주시오,대사가말하거늘
그러면그부탁은엇떤것임니가
그것은달음아니라,달은배암들은
야광주(夜光珠)를하나만물어도
룡(龍)이되여승텬을하는대,나는야광주를
셋이나물어도룡이못되고잇스니
엇떤면좃켓는가무러다주시요[93]

세 개의 야광주를 갖고도 용리 되지 못한 것은 연꽃의 경우처럼 자신이 현재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다. 현재 내 손에 쥘 수 있는 기쁨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가린 것이다. 고은임[94]은 이 존재들이 주는 의미가 '가득 찬 것이 곧 결핍이고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할 진리이자 지혜'라고 밝혔다. 대사가 두 개의 구슬을 오늘이에게 증여함으로써 오늘이는 자신이 여정을 떠날 계기를 마련해준 백씨부인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

92)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4면.
93)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위의 책, 294면.
94)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 2010, 213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으며 신녀로 변화할 수 있었다. 물질적, 정신적 비움은 누군가에게 채움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당사자와 주변을 동시에 넉넉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상보성은 여정이 진행될수록 강조되면서 서사 구조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이명현[95]은 <원천강본풀이>의 상생에는 의생과 나눔이 전제되어 있음을 밝혔다. 상가지의 꽃봉오리 하나가 나머지 꽃봉오리의 영양분을 독차지하고, 대사가 자기 몫 이상의 구슬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독점'의 상태라는 것이다. 서로가 공존하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상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공동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이 과잉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가는 마지막 여정에 만난 옥황시녀들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가 결핍된 이들과 같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원하는 마음은 크지만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면 깨진 박으로 물을 퍼내는 일과 같이 공허할 뿐이다.

> 전일에는그들이옥황시녀엿섯는데
> 우연이득죄하야,그물을푸고잇는바
> 그물을다-퍼내기전에는
> 옥황으로올나갈수가업는데
> 아모리풀이하야도푸는박아지에
> 큰구멍이뜰버저잇기까닭에
> 족음도물을밧그로퍼낼수가업는것이엿다[96]

옥황시녀와의 만남에서는 오늘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는 수평적인 주인공의 여정이 상층 공간에 도달하기 위한 수직 이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며 천상의 세계로 도달하기 위한 통과제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

95) 이명현, 「<오늘이>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화적 대안 - <원천강본풀이>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 」, 『동아시아고대학』 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27면.
96)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 존재인 오늘이는 구멍 난 바가지 때문에 물을 긷지 못하는 선녀를 만나는데 선녀의 입장에서는 외부(지상계)의 존재가 내부(선계)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의 존재 오늘이가 선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강이라는 이계를 경험한 오늘이가 다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형성[97]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상과 이계의 상보적 관계로 오늘이라는 샤먼의 매개를 통해 각 세계의 외부 요소가 내부적 문제들을 치유한다.

> 그리하야,갓치조력하야주기를
> 오날이에게청하니,오날이는
> 옥황의신인이못푸는물을,어리석은인간
> 으로서엇지풀수잇는야고사퇴를허다가
> 정당풀을비여모게하고,배게를맨들게하야
> 박아지의구멍을막고거게다가송진을녹여서
> 그막은곳을칠하야튼튼히잘르고
> 정성을다하야옥황상제의게축도를한후
> 물을푸니,순간에그물이말너붓거늘
> 시녀궁녀사지에서소생헌듯이광히하며
> 백배사례하고,[98]

세 궁녀와의 만남은 오늘이의 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깨진 박을 막는 우선적인 단계 없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울고만 있는 이들에게 오늘이는 현재 그들의 문제를 보게 하고 천상의 존재를 지혜롭게 도와주었다. 천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이함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받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의 성격을 보면, 장상과 매일은 인간 남녀이고, 연꽃나무는 식물이며, 큰 뱀은 동물이다. 그리고 옥황의 시녀들은 신적인 존재들이다. 신동흔[99]은 이

97)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 2010, 211면.
98)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6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존재들이 이 드넓은 우주에 깃들어 살고 있는 여러 층위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표상한다고 하였다. 홀로 길을 떠난 오늘이는 그러한 다양한 존재들과 차례로 만나면서 세상 만유(萬有)가 자기 존재를 끌어안은 채 고독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그러한 만남과 교감은 그가 존재의 근원적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만으로 존재적 고독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벽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상징인 원천강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오늘이는 문지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 지점에서 오늘이는 참았던 통곡을 쏟아놓게 된다.

1-3. 오늘이의 통곡

오늘이의 하소연은 짧은 채록본의 서사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을열어줄수업노라
문직의거절은넘우나냉정하얏고
가련헌오날이에게는최후의졀망인것갓치하야
하날이문허지는것갓텃다
오날이는용긔의최의일발까지를상길하고
안전이암연하야부모국문전에혼도하얏다
지면에복와한오날이는기백만리인간
원방에서처녀단지혼자외로히
왼갓산과왼갓물을건너웬고생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이런곳을차저왓는데
이러케도박정하게하는구나
이문안에는내부모잇슬연만은
이문압헤내여기왓건만은
매일이는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99)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69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원텬강신인들은넘우무정타
비인들에홀로이울든이쳐녀
쳔산만하넘을적에웨로운쳐녀
부모국의문압헤웨로운처녀
부모는다보왓나,내할일다하얏나
강님갈까뭇엇할이,여기서죽자
팔자부탁어찌할이
모든은헤어찌할이
박정헌문직이야,무정헌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날이는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하며
연하야늣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낫다
문직이가부모궁에올나가서,이런사실을주하니
발서부모궁에서도알고잇섯다
그비명소래는
부모에게까지흘러갓든것이다[100]

오늘이의 이 독백에는 부모님을 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오늘이의 복바친 서러움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신동흔은 문지기의 마음을 움직여 굳건했던 원천강 문을 열게 만든 오늘이의 흐느낌과 하소연은 그 지대한 열망과 지극한 몸짓의 발현[101]으로 보았으며 김권호[102] 역시 오늘이의 통곡은 어린 아이의 퇴행적 심리로서의 포기가 아닌 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히며 어린이용 판본에서 오늘이의 통곡이 생략되거나 전부 삭제된 것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밝혔다. 오늘이가 마지막 시련 앞에서 쏟아내는 눈물의 의미는 퇴행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지막 관문 앞에서의 좌절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0)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6-297면.
101)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70면.
102) 김권호, 「교과서 수록본 <오늘이>의 비판적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6(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7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오늘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섯다
문을열어달나하니,그것은누구이냐
나는인간세상오날이라는처녀이요
무슨연고로이곳에왓는고
이것이나의부모국이라허니찻저왓소
문을열어줄수업노라
문직의거절은넘우나냉정하얏고
가련헌오날이에게는최후의절망인것갓치하야
하날이문허지는것갓텃다[103]

그러나 냉정하게 가로막는 문지기로 인해 절망한다.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되어야 할 오늘이 반드시 가야하는 곳 앞에서 방해를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이는 통곡하게 된다. 통곡은 첫째, 설움을 풀어내는 기능을 한다.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털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외로움과 고뇌에 묶인 채로는 시간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계절이 열리도 닫히는 시간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들어가는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다. 시간의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은 오늘이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를 인식하게 하여 자신이 가진 슬픔을 털어내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오늘이는 통곡은 감정의 독소를 다 씻어 내리게 하여 비로소 부모와도 자신과도 화해하게 한다.

웨이곳에왓느냐하니
학이새짓속에서살든때붓터
지금가지의지난일을모조리말하야들니엿다
부모가긔특하다고칭찬하며
자긔자식이분명하다고하얏다

103)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6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리하야또하는말이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텬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너를보호하고잇섯다[104]

오늘이는 드디어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한 바탕 울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뿌리인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 찾기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부모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한다. 바로 이 지점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풀어내는 통곡의 과정이 있다. 이 통곡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부모와 화해하고, 분열된 자신의 심리를 온전하게 일치하게 만들어 신적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105]인 것이다.

셋째, 통곡은 존재를 전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통곡의 흐름을 보면 부모국 앞에서 막혀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여기서 죽자”라고 말하지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부탁받은 팔자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비명허는 소래”를 지르게 된다. 장상과 매일, 연꽃나무와 큰 뱀은 모두 ‘원천강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 벽을 허물어 존재의 문을 연 존재가 바로 오늘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원천강본풀이>를 고찰한 이광자[106]는 망아상태로 문지기와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이 장면은 오늘이가 넘어야 하는 샤먼의 입문의례로 보았다. 문지기는 오늘이의 원천강 출입을 막음으로 오늘이가 신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통곡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온전한 정체성을 찾은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의 전환으로 신적인 존재로의 차원이 열리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

104)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98면.
105) 김권호,「교과서 수록본 <오늘이>의 비판적 검토」,『우리말교육현장연구』6(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76면.
106) 이광자,「원저(原著) : 원천강(袁天綱)본풀이(本解)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심성연구』29(1), 한국분석심리학회, 2014, 63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늘이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만나며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 인물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수많은 다른 존재들에게 원천강이라는 우주를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적막한 들에서 혼자 방황하던 소녀가, 자기가 누구인지 까마득히 몰랐던 소녀가 그렇게 우주적인 존재가 되었다.[107] 통곡이 원천강의 신으로의 자격을 얻게 한 것이다.

2. <원천강본풀이>의 교육적 가치

2-1. 자기 탐색의 여정

빈 들에 홀로 솟아난 '오늘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현재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황량한 세상 속 외로운 존재 오늘이가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 '관계 맺음'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숙명적인 물음을 자의반타의반으로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치 있는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신화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인간과 세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는 사유의 장이 된다. 그렇기에 김명석[108]은 특히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신화 읽기를 통한 독서 및 쓰기 지도는 그 교육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재에 대한 불안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지만, 반대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지 말할 수 없을 때 자아를 찾는 여행에 대한 동경과 열망[109]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이의 자아 찾기 여행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절실한

107)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73면.
108)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236면.
109) 이명현, 「<오늘이>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화적 대안 - <원천강본풀이>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 」, 『동아시아고대학』 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26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여행이며,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도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2. 만남과 성장

이 이야기는 짧은 서사 속에 많은 철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강에 있는 부모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을 넘어서서 오늘이는 다시 홀로 걷는 길을 택한다. 오늘이는 '만남'을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의 확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저마다의 결핍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나 혼자 탐구해서는 알 수 없는 '나'를 계시해주는 것은 '만남'이다. 만나는 존재들은 온전하지 않다. 저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이는 자기 존재의 핵심 질문들이다. 이를 듣고 오늘이가 대신 그 물음을 풀어주는 과정, 즉 인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은 오늘이를 포함하여 오늘이가 길에서 만난 여러 존재들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존재임을 바라보는 것,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연대[110]해야 한다는 것을 <원천강본풀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연꽃과 이무기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욕심을 부려 존재의 완전성을 추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게 서둘러 핀 꽃을 꺾고 여러 개의 여의주를 버리고서야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장상이와 매일이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부부 합일을 이루었으며 오늘이 역시 팔자(八字)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신녀가 될 수 있었다.[111]

결국 나는 무엇이며, 지금 여기에 돼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이들 만남의 화두가 된다. 자신이 매일 끊임없이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성심껏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러한 고민은 이 시대 교실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여

110) 김민수,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11)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201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전히 유효하다.

이야기가 세계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면[112], 학생들은 <원천강본풀이>에서 드러나는 만남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내가 겪는 문제와 너의 결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만남을 통한 관계 맺음이 경쟁적 성장을 넘어 연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

2-3. 통곡의 재인식

이봉희[113]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 기억은 왕성하게 살아나 삶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게 됨을 밝혔다. 결국 감정의 절름발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이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크게 경험하며, 이것은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표출하지 못한 정서들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갖가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하며 강한 자기억제가 지속될 경우에 자기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제가 작용하여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114] 그렇기에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 마련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전 학년, 전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중된 수행으로 여겨져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범교과적 특성을 가진 국어 수업을 통하여 자기표현 및 자기탐

112)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99면.
113) 이봉희, 「감정 그리고 글쓰기」,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지』6, 한국독서치료학회, 2008.
114) 한상철, 『청소년학 :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04, 239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색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를 접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정서를 다독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어 교육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넉넉하게 울어도 된다고 말하는 텍스트이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원천강까지만 가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부터 부모로부터의 분리, 거절을 경험한다. 누구나 다양한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상실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적인 삶의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는 것[115]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기대, 사회로부터의 기대를 내가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로 '커서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오늘이를 통하여 자기 삶의 문제와 상실을 직면하고 애도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실존적 과제임을 발견하게 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통곡을, 그 애도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이다.

115) 김영희, 앞의 논문 225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수업 설계와 실행

1. 수업 설계

김영희[116]의 말처럼, '이야기'가 힘을 발휘하는 국면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 매개될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은 연행의 현장이다. 이야기판은 이야기 담론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업 현장에서 구전 이야기의 연행 주체인 교사가 구술 담화의 다성성(多聲性)과 정체성 수행 발화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반항적 언술과 공동체 경계를 재구성 하는 이질적 반응에 열려있다면, 이야기가 연행되는 교실은 집단 동일성의 강박을 깨고 탈주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 역동적인 이야기 공간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계속 바뀌어도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는 교육 현장 속에서 국어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아래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구전이야기 연행과 자기표현 글쓰기의 가치 인식이 연동되는 수업을 제시하여 2015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117]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서해숙은 야콥슨이 제시한 의사소통 방식[118]이 이야기판에서도 설화를 통하여 실현될

116)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181면.
117) 교육부,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09 고시
118) 서해숙은 야콥슨의 의사소통과 이야기판의 의사소통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이야기판에서도 이러한 도식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림은 아래와 같다.(서해숙, 「멀티미디어시대 설화문학의 교육적 재구성 방안」, 『남도민속연구』26(0), 남도민속학회, 2013, 164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자언어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구술 언어적 특징과 문자언어적 특징이 혼용된 언어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판은 오히려 생소한 것이 아닐 수 있으나 수업 현장에서는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조윤형[119] 또한 구전설화를 제재로 그 소통 구조와 원리 등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의사소통능력 신장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갖게 될 것을 주장하였다. 구술성을 본질로 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소통의 기회도 많고 풍부하고 예술적인 소통 경험을 누리게 하며 입말 소통의 본질을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전 이야기의 연행은 자기표현 쓰기 활동이 필자 지향적 쓰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의사소통적 측면에 대한 보완도 될 수 있으며, 듣고 말하고 반응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발견, 재해석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전 이야기 연행의 필요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수업의 차시별 교수-학습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수업한 뒤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위해 설계한 것이다.

[표4] 자기표현 글쓰기를 위한 2차시 교수-학습 내용의 개관

차시	교수-학습 내용
1	학습 목표: 1. <원천강본풀이>를 듣고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2. '오늘이의 여정'을 통하여 자기 경험을 의미화 할 수 있다. 2. 내 삶의 문제를 인지하며, 통곡의 중요성을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다. ①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기 ② '글쓰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 자기표현 글쓰기에 대한 안내(글쓰기의 부담감 덜어주기) ③ <원천강본풀이> 이야기를 듣고 모둠활동을 통하여 내용 이해하기 -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 파악하기

119) 조윤형, 「구전설화의 교육적 가능역(可能域) 연구 -그 소통의 "구술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206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그 존재들과 유사한 사람이나 나의 경험 떠올리기 ④ 개별 활동지 작성하기 (글쓰기 준비 단계)
2	학습 목표: 1.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구전이야기를 통하여 현재 자신의 문제를 비춰볼 수 있다. 3.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학작품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4.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기회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① 전 차시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정리 ② 자기표현 글쓰기에 대한 안내 ③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편지쓰기 ④ 개별 피드백 진행하기

(1) 1차시 수업 계획 및 활동지

[표5] 1차시 교수-학습 계획

단계	교수-학습 내용	자료	지도상 유의점
도입	▫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기 : 학습목표를 확인하며 자기 탐색을 위한 활동 전에 자기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 '글쓰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 :- 글을 쓸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 너희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많이 털어놓니? -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 써본 적이 있니?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공감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전개	▫ <원천강본풀이> 이야기를 듣고 모둠활동을 통하여 내용 이해하기 -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 파악하기 - 그 존재들과 유사한 사람이나 나의 경험 떠올리기 -모둠별 발표를 통하여 의미 확장하기 ▫ 개별 활동지 작성하기 (글쓰기 준비 단계) - '오늘이'와 관련하여 자기 경험 구체화 하기 - 내 삶의 문제 확인하기	활동지, ppt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몰입을 위하여 책상 배열을 고려한다. 모둠활동과 개별활동을 해야하므로 책상 배치를 미리 안내한다.
정리	▫ 활동지를 통하여 얻은 생각을 토대로 '내 안의 오늘이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1차시 수업은 자기표현 글쓰기의 준비단계인 동시에 구전 서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에 소리로 반응하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현장을 마련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다. 교수자는 또한 작품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원천강본풀이>를 연행하면서 활동지 수행을 돕기 위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지의 질문은 크게 작품 이해를 위한 질문과 자기 탐색을 위한 질문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이는 텍스트 해석을 추동하는 비계 설정인 동시에 자기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 탐색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은 <원천강본풀이>의 이야기가 자기 삶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옛날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작품인 이유를 능동적으로 찾게 되며 자기 경험을 끌어오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자기 삶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며 이것은 다음 차시 글쓰기의 재료가 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1차시

1학년 반 번 이름 =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마음열기 - "너는 누구니"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 외로이 나타나니
그를 발견한 세상 사람들이 물었다.
"너는 누구니?"

모둠 함께 생각 나누기 – "만남의 의미"

1.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의 특징을 정리해봅시다.

<원천강본풀이>의 조력자 등장 순서	특징 (문제 상황)	내 주변에 닮은 사람 혹은 비슷했던 나의 경험
장상 도령(남)		
연꽃나무		
큰 뱀		
매일이(여)		
옥황 시녀		

2.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난 후 왜 다시 길을 떠났을까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내 안의 나에게 물어보기 – 나는 나일뿐입니다.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였나요?

2.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3. 내가 '오늘이'라면 부모님을 만난 후 다시 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나도 오늘이처럼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5. 나에게도 오늘이처럼 답을 알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나요?
   나에게 '오늘이'(신)가 찾아온다면 무엇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은가요?

6. 당신은 누구입니까?

- 나는 _____ 이다. 이유)

- 엄마에게 나는 _____이다. 이유)

- 아빠에게 나는 _____이다. 이유)

- 나에게 부모님은 _____이다. 이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2차시 수업 계획 및 활동지

[표 6] 2차시 교수-학습 계획

단계	교수-학습 내용	자료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지난 시간 적어둔 활동지를 언급하면서 <원천강본풀이>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과 인물들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의미를 정리한다. ▫ 오늘이처럼 우리도 '나'를 찾아가는 길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지오디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려준다.	유튜브: 지오디-길, 가사ppt	글쓰기 동기 부여를 위해 격려와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전개	▫ 자기표현 글쓰기에 활동 대한 안내 : 자기표현 글쓰기는 스스로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점검하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임을 명시. :글쓰기 자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 속 '오늘이'처럼 표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사의 경험을 비춰 설명. ▫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편지쓰기	활동지, 글 쓰는 동안 틀어줄 음악 필요	학습 주체가 글쓰기의 목적과 의미를 사유하도록 격려한다.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 배열을 한다.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도록, 한 줄이라도 자기 마음을 썼다면 괜찮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리	▫ 문학이 내 삶에 주는 것을 나누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한다.		

2차시 수업에서 자기표현 글쓰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함께 노래를 감상하도록 배치하였다. 글쓰기에 대한 거리감, 부담감을 완화하며 글쓰기로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래의 가사처럼 자신 안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자기표현 글쓰기에서는 학습 주체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와 안도감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리 배치를 배려하고 글을 쓰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120]

교사는 '내 안에도 울고 있는 오늘이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전 차시와 연계된 질문을 통하여 쓸 거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오늘이의 통곡이 갖는 의미를 나누며 감정을 직면하고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쓰기의 목적과 의미를 사유하며 글쓰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형화된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들에게 쓰기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부여하고 글쓰기 주체가 능동적으로 글에 참여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0) 교수자는 담화공동체의 상황과 조건을 석불리 판단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며 압박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맥락 속에는 분명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언표화하지 않더라도 학습자는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담화공동체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한지 유의해야 한다.(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21면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반 번 이름 =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실제 수업 운영

2-1. 구전 이야기 연행

1차시에서는 글을 쓰기에 앞서 '쓸 거리'들을 내면에 흐르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구전이야기는 자기 안의 이야기를 꺼내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 수업현장에서는 이야기판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은 필기에 치중하고, 교사는 모니터 화면 혹은 교재에 시선이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천강 본풀이> 이야기를 구연하고자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주로 배부된 학습지만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 전달에 능숙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사는 이야기의 힘을 경험한 '먼저 된 향유자'여야 할 것이다.

구연 내용은 『조선 무속의 연구』[121]에 실린 박봉춘 구연의 <원천강본풀이>를 토대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신동흔이 『살아있는 한국신화』[122]에서 현대어로 옮겨 놓은 텍스트와 해석을 참고하였다. 아래는 실제 수업에서 한 연행을 녹취한 것을 부분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며 학생들이 구연 중에 보인 반응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 선생님은 이 이야기 첫 구절, 첫 장면에 빠져들었거든.
> 얘들아, 한 여자 아이가, 들판에서 외롭게 솟아났대. 웬 여자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겠어? (학생들: "뭐하고 다니냐", "너 누구니")
> 그래,
>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이름이 뭐야?"(학생: 저는 000인데요.)
> 소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거야.
> "부모님은 어디 계셔?"
> "모릅니다."

121)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122) 신동흔, 『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집은 어디니?"
"저는 빈 들판에서 솟아났고, 어떤 학이 절 보살펴 줘서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왔어요. 그것밖에는 몰라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는 누구니, 어디 가는거니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본인은 얼마나 궁금할거야. 사람들이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름을 지어줬어.
"얘야, 너는 니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인지 모르니까 오늘은 낳은 날로 해서 이름을 '오늘이'로 하자"

이야기는 한쪽 방향을 보고 나란히 앉아서 이루어지기에는 어색하다. 그러므로 둘러앉듯이 자리 배치를 하고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을 이야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필자는 연행을 할 때 앞에 앉은 학생을 오늘이라고 가정하고 다가가서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해당 학생은 "저는 000인데요." 라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이의 여정에서 만난 인물이야. 장상 도령. 도령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원천강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상 도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서 맨날 글만 읽어요. 밤낮으로 평생 글만 읽고 살아요." (학생들: "헐", "우리네")
그래, 니네랑 똑같다, 그치? 아무튼 장상 도령이 오늘이한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 가다 보면 연화못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꽃나무한테 물어보면 된대. 근데 여기서! 장상 도령이 오늘이를 불렀어.
"저기요..." (학생들: "고백해요?", "가지 말래요?" "올~")
아니, 아쉽게도 고백 타임이 아니었어. 도령이 오늘이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
"원천강에 가시면요, 제가 왜 여기서 밤낮 글만 읽어야 하고 이 성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지 이유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의 학생들은 '고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야기 흐름과 관계없이 흥미를 보였다. 필기하며 듣던 학생들도 고개를 들고 웃기도 하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거리를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것은 라포[123]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 (학생들: 연꽃나무)
연꽃나무한테 물었지.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원천강을 찾고 있어요."
"아 진짜? 잘됐다! 그러면 내 팔자 좀 물어봐줄래?"
"무슨 팔자요?"
이 연꽃나무는 봄이 되면 꽃이 펴야 하는데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안 피는 나무였던 거야. 뭔가 예쁜 옷을 입다만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윗가지에만 꽃이 피는 게 왜 그런지 그 팔자를 물어봐 달래. 오늘이는 뭐라고 했을까? (학생들: "알겠다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또 연꽃나무가 알려준 바닷가로 갔어. 거기엔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이 길을 알려 줄거래. (학생들: "또 부탁해요.")
맞아. 진짜 큰 뱀이 있는데 뭐를 물고 있었을까? (학생들: "여의주!", "드래곤볼")
맞아, 맞아. 야광주! 그걸 물고 있는 큰 뱀한테 가서 길을 물었는데 큰 뱀이, 자기는 왜 여의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데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냐고, 그것 좀 물어봐 달래. 그러고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서 바닷가를 건너줬어. 거기에는 매일이라는 여자애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다음 길을 알고 있었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인데요." (학생들: "부모님 찾으러 왔어요.")
이제 잘 아네. 그럼 매일이도 길 알려주고 뭐 했을까?
(학생들: "뭐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요.")
"저는 매일 앉아서 글만 읽어요. 왜 항상 저는 이렇게 글만 읽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123)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이다.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라포는 이를 충족시켜 주는 동인(動因)이 된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물어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랑 똑같애? (학생들: “도령”, “장상이”)

이야기 구조를 파악한 학생들은 연행자가 할 말을 예측하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이어 가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 나 이 이야기 아는데” 라며 주변 친구들에게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냐고 권했으나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연행판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최상의 이야기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중들은 자격을 부여받은 인물이 아닐 경우 이를 제지하기도 하며 경쟁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제 원천강 문 앞까지 왔어. 드디어 바다건너고 온갖 일 해가며 왔단 말이야.
앞에 문 지키는 파수꾼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에요. 여기에 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하는데 문지기가 글쎄, 아니 글쎄 (학생들: “저리 비켜!”, “헐”, “부모님 없다고”)
문 못 열어준다는 거야. 냉정하게. (학생들: “나빴다”)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진짜 문 앞에서 막혀 버린거야. 그냥 다리 힘이 풀리지.
(학생들: “그렇게 끝나요?”, “그럼 어떡해요?”)
숨이 턱 막히겠지. 너무 슬프면 처음에 눈물도 안 나. 알아? (학생들: “네”)
앞이 깜깜해서 주저앉았어.
“제가 얼마나 고생 고생해서 여길 왔는데, 부모님 볼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 볼 수 있을텐데...저 문만 열면 보는데, 어쩜 그리 냉정하게..”
이러면서 서러움을 풀어 낸 거야.
“외롭게 태어나서, 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오면서 받은 부탁들은 또 어떡하고, 그리운 내 아버지, 그리운 내 어머니...”
오늘이가 거의 기절하듯이 토해내는 거야. 자기 아픔을. 펑펑 울었겠지, 문 앞에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생들은 이 대목에서 가장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 장에서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야기 연행이 의미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정서와 상황을 알 수 있는 입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글에서도 드러났지만, '소리내서 펑펑 울고', '엉엉 운다'라는 표현에 학생들이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행'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매개된다. 김영희[124]는 이야기라는 매체는 단순히 도구적인 존재를 넘어 개별 주체의 인식과 지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문화와 사회적 소통 방식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동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식과 사회적 기억 및 경험의 장을 연결하는 '사회적 코드화'의 기제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울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차시 수업 이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은 '힘들 땐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서가 공유되며 오늘이처럼 힘들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무리지어 이야기하거나 울고 있는 얼굴의 여자를 활동지에 낙서로 그려두는 등 자기 정서를 표출해내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개별적인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동흔[125]은 이야기라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건이 어렵다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기운과 원 자료의 맛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이야기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유리장이나 녹음테이프 안에서 잠자고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서정오[126]의 말처럼, 국어 수업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흐르고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다. 문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폭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전달양식이 연행의 방식과 함께 제시될 때 예술적 즐거움은 증폭[127]될 것이며, 이야기는 학습자들에게로 스며들어 제 구실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전 이야기를 교실 현장으로 끌어온 것은 내 주변, 나의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

124)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29면.
125) 신동흔,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5(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2면.
126)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2017, 7면.
127) 나경수,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13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들을 글쓰기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쓰기 교육이 학습자의 삶을 소외시키고 '나'도 모르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애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저마다의 이야기에 정체성이 있고 미래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활동지에 대한 학생들 반응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이야기를 연행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에게 각자 이야기를 정리하게 하였다. 이를 능동적으로 해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필기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야기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원천강본풀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에 활동지를 통하여 오늘이가 만난 존재들의 문제 상황을 정리하게 하였다. 더불어 인물들이 처한 문제 상황과 비슷했던 나의 경험이나 떠오르는 사람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자기 경험과 연결하는 활동으로 학습자에게 문학작품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경험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주는지 체험하도록 돕는다. 오늘이가 만난 인물들과 비슷한 사람이나, 비슷한 경험을 물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것은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자신의 이름이었다. 아래의 표에는 실명을 기입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나 내 옆의 친구가 이야기 속 존재들과 닮았다고 응답했다. 공통된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7]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한 인물에 대한 자기 경험 반응

<원천강본풀이>의 조력자 등장 순서	내 주변에 닮은 사람 혹은 비슷했던 나의 경험
장상 도령	공부할 이유를 잘 모르는 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 원하지도 않게 강제로 수행평가나 공부를 할 때/ 고3형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름/
연꽃나무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했을 때/ 덕질하는 친구/
큰 뱀	소유욕 많은 친구/ 공부를 다 했는데도 놀 수 없음/
매일이	우리나라 학생들/ 나/ 고3들/
옥황 시녀	멍청하다/ 공부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을 때/

1차시에서는 모둠 활동과 개별 활동을 연결하여 진행했다. 개별 활동을 위해서는 자리 재배치가 필요했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고 쓰기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하여 '장상 도령'과 '매일'의 캐릭터에 가장 이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요즘 수행평가로 힘들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고충을 털어놓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와 유대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탐색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게 하였다. 이 활동에서 주목한 것은 <원천강본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금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8] 활동지 문항에 대한 학생들 답변

내 안의 나에게 물어보기	학생들 답변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였나요?	시험 칠 준비를 하는 순간/ 왕따 당했을 때/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여러 개 겹칠 때/ 00중학교에 친구들은 다 붙고 나 혼자 떨어졌을 때/내가 혼자 힘들게 공부할 때/ 고민이 있는데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 과제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주지만 설명해주지 않을 때/나빼고 다 시험을 잘 봤을 때/ 나는 지금이 그렇다. 나는 불안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2.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장상과 매일이:** 지금 현재 나와 너무 비슷하고 시험기간이 되면 밤낮없이 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서/제일 현실적인 캐릭터이다./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왜 배우는지도 잘 모르겠으며, 이유도 모르는 것들을 배우며 진로를 찾기가 어려웠던 생각이 나고 이 진로도 가야할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 **큰 뱀:** 여의주를 3개나 갖고 있음에도 승천할 수 없는 것/ 승천을 하지 못 하는 것이 나같아서/ 내가 하고 싶을 대로 욕심껏 지내던 것이 기억나서/ **오늘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이 좋아서 **옥황시녀:** 바보같아 보여서 **오늘이가 들판에서 방황하는 장면:** 뭔가 혼란스럽고 쓸쓸할 것 같아서
3. 내가 오늘이라면 부모님을 만난 후 다시 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떠났을 것 같다:** 받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조력자들이 없었더라면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대가로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까/ 홀로 뒀다는 배신감에/ 부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야 할 때이기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나지 않는다:**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소중한 사람을 두고 쉽게 못 떠날 것 같다./ **떠난 뒤 다시 올 것이다:** 만약 올 수 없다면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민을 해결해주고 다시 돌아간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나도 오늘이처럼 누군가를 조건없이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었고 내 꿈을 생각해보는 계기/ 도와준 적이 있는데 나는 아직 메마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느낌/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가시는데 바람 때문에 날아간 것을 정리해드린 경험이 있고 이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생겼다./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도움을 받은 적은 있다. 그 친구 덕분에 다정함과 친절을 배웠다./ 내 편이 생긴 느낌/
5. 나에게도 오늘이처럼 답을 알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나요? 나에게 오늘이(신)가 찾아온다면 무엇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은가요?	00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언제쯤이면 힘든 것이 사라질까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인지/ 후회없이 결혼할 수 있는지/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정한 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이 된 것이 정말 좋은가?/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지 1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보면 크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계의 실패'에 따른 경험이 '외로움'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통에 대한 갈망과 결핍된 관계에 대한 좌절로 인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과중한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났다. 실제로 글쓰기 수업을 하던 날은 영어 수행평가와 수학 수행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었으며, 몇 학생들은 국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틈틈이 수행평가를 꺼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신 시험의 비중이 줄었지만 수행평가가 많아져서 평소에 해야할 것이 늘었다는 것은,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과정을 평가 하기 위해 확대된 수행평가라는 대안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고민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낸 현장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상황이 이렇기에 활동지 2번 문항에서는 자신들이 '매일과 장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활동지 3번 질문은 1차 자아정체성을 찾은 오늘이의 다음 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으며,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대체로 다시 여정을 떠날 것이라고 답한 이유는 '부탁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였으며,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 여정을 오기까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그렇기에 만남의 여정 속에서 부탁받은 것들을 다시 전하러 가겠다는 선택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정을 떠나겠다는 선택 안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홀로 두었다는 배신감과 무책임함을 근거로 '나도 부모를 떠날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

"앞으로 그럼 부모님은 못 봐요?" 라고 재질문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는데, 부모님을 다시 뵙는 것이 어렵게 된다면 원천강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선택을 바꾸기도 하였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며, 다른 이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 '나'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이후 여정을 주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부모와 나의 관계를 비유한 단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빠와 엄마에 대한 개별적 인식과 경험은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표현처럼 부모님은 '신'이며 '전부'일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학생 글 분석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표9]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나'에 대한 학생들 답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학생들 답변
엄마에게 나는 (　　)이다.	어린아이, 강아지, 버팀목, 골칫덩이, 의지할 곳, 장난꾸러기 악마, 자랑, 싫은 사람, 웃음, 기대, 희망, 지지대, 책임감, 재롱잔치
아빠에게 나는 (　　)이다.	보라색(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라서), 든든한 아들, 대장군, 나잇값 못하는 딸, 사랑, 나쁜 딸, 롤모델, 삶의 이유, 그저 딸, 자랑스러운 큰 아들, 상장
나에게 부모님은 (　　)이다.	심장,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구니, 집, 가깝지만 다가가도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신, 모든 것, 나의 우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핸드폰, 삶의 이유, 침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도 오늘이처럼 누군가를 조건없이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는 4번 문항 질문에 유의미한 답변을 한 학생들은 누군가를 돕는 경험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생각과 설계가 구체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도와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자기 탐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오늘이(신)가 찾아온다면 무엇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은가요?’ 라는 5번 문항의 질문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궁금함에서 기인한 답변들이었으나 철학적 사유로 나아가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번 문항에서 답한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하는 질문들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자기 탐색을 돕는 활동지는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민’을 직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관계 맺음’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관계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본인이 무엇에 대해 사유해야 하는 존재인지 물음을 던진다.

활동지를 같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자기표현 글쓰기에 앞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점검하도록 자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활동지 답 채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상황을 그려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점검하고 풀어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수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문제를 직면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풀어나갈 힘을 발견할 수 있는 필자 주체임을 교사가 신뢰하고 있음을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할 때 수업에 집중도를 보였다. 수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글쓰기 평가자로서가 아니라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털어놓기도 하는 안내자’로 학생들이 교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려는 기술이라기보다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의지였으며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는 의도에서였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나누는 이야기, 발표한 내용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감해주었으며 자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탐색 질문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친구들과 대화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수업 시간을 생소하게 느끼면서도 흥미롭게 여겼으며, 교사가 이 시간을 소중히 다루면서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초반에는 집중하지 못 하고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던 학생들도 수업 후반부에서는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학생 글에 나타난 자기표현 글쓰기의 결과 분석

1. 갈등의 직면 : 방황하는 자아 발견

자신이 가진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갈등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도 '갈등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대와 맞물려 나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그러한 기대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학생1, 고1, 여> 안녕, 00아. 벌써 내일 또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또 봐야지, 수행평가 챙겨야지, 내신관리도 해야되지 중학교 때보단 정말 힘든 것 같아! 혼자 집에서 울어보기도 했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중간고사 보고선 항상 많은 생각이 들어. 등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행평가도 중학교에 비해 너무 많고 점수도 잘 안 주는 것 같아.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매일 안 힘든 날이 없는 것 같아. 요번에 기말고사가 또 있는데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어.** -후략-

> 학생2, 고1, 여> -전략- 나는 내 진로를 정했지만 그 진로가 내 길인지도 모르겠고 자서전이나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나에 대해 적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항상 나는 나 자신을 적기 보다는 나보다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비슷하게 적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인해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만한 계기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항상 나를 알아보려고 하기 보다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재창조하며 사는 것 같다.** 나의 내성적인 이미지는 엄마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많이 들었던 말이라 내가 더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내 의견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난 항상 생각은 괜찮고 편안한데 나도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손톱도 깨물고 초등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 때까지 손가락도 빨았던 것 같아.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안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좀 그래.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 방에서 울거나 속에 담아뒀는데 이러면서 더 혼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지도 좀 두려워.**

학생3[128], 고1, 남>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종교를 물으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마저 의심하고 싫어질 때가 있다. 내 갈 길을 '나'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는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증오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에 자랑스러울 때 '나'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게 모순이다. 난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의미없다'도 의미가 있다. 나는 내 고민을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학생4, 고3, 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충 학력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닌거고 갑자기 전공을 정하라니 너무 막막한 문제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도전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하려 했다가 하자니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의 문제로 겁먹어서 포기하고 조금은 자기 합리화**하면서 생각하고 일단락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내리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적당히 내 전공에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산다한들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실제로도 이런 고민보단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적당히 사는 게 좋고 취미생활로 충분한 활력도 얻어가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하고 어디선가 뛰어난 사람이나 자기 일에 보람을 갖는 사람은 되지 못해도 사실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나에 만족하고 지내기로 했다.

128) 학생3의 경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집중력이 좋지만 전형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하는 것이 편한 타입의 학생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 상황에 부딪혔으며 주어진 쓰기 시간의 절반이 흘러가도록 아무것도 쓰지 못한 상태였다. 학생들이 쓰기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7에게는 글에 접근하기 쉬운 안내가 필요했으며, '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지금 쓰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였다. 위의 글은 이후에 학생7이 제출한 글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 글쓰기를 주저했음을 말해주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생5[129], 고3, 여>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오면서 만났던 인물들을 생각해보니 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충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는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늘 속상하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누가 내 마음을 날카로운 거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 아빠께서는 화가 한번 나면 끝도 없이 날카로운 말을 하셔서 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어도 내 귀에는 다 나때문인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누군가를 위려해줄 여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냉정해진걸까. 엄마는 이런 나를 보며 냉정하다고 딸 맞냐고 말씀하시는데 농담이어도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중략- 항상 속으로 울고 답답함을 느낀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첫째고, 엄마아빠가 돌아가시면 동생만 남으니 잘 챙겨주라고 하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항상 친절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 다 옳은 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난 아직도 모르겠다. 착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배려도 하고 다 베풀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진다. 내가 나이를 먹고 이 질문에 다시 글을 작성해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답을 쓸 수 있을까요?**

학생6, 고3,여> 나에겐 초등학생 때 생긴 트라우마가 하나 있다. 초등학생 때 집단 따돌림, 거짓 소문 등으로 학교 폭력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당했었다. 그래서 난 누군가에게 다가가 관계 형성 하는 것을 못한다. 또한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내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남들에게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 일을 잊으려고도 해보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혼자 끌어안고 있다.** 언제쯤 이 문제를 잊을 수

129) 학생5와 같은 경우 개별 피드백 과정에서 자신에게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쓰면서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나쁜 딸로 느껴지는 순간이 싫어서 참아두었던 것들을 20대가 되어서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풀어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으며, 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느끼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있을지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후략-

학생들의 글에서는 자신이 현재 끌어안아야 하는 것들의 버거움이 드러난다. 특히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하여 보낸 유의미한 신로는 자신이 느끼는 막막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학생 2)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책(학생 3)하였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억압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으로 혼자 외로움, 소외감, 좌절감을 끌어안고 있음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감사한 존재이지만 힘겨운 부모(학생5)에 대한 양가적 감정,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서 오는 좌절과 불안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학생들은 글을 쓴 뒤에도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냐', '결론이 잘 나지 않았는데 괜찮냐'는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글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여전히 타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게 된 경험들을 다시금 대면하는 기회였으며 적지 않은 분량의 글을 쓴 자신이 신기하다고 고백했다. 자기표현 글쓰기를 통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7[130], 고3, 여>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쥐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에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 물론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정말 혼**

130) 학생7은 개별 피드백 과정에서 글이 구체화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삶에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찾아왔음을 고백하였다. 또한 입시 경험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문제, 대학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 문제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힘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다. 글쓰기 과정은 치유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섣불리 치유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교수자는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집중해야 함을 상기하였다. 학생의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보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및 도서를 안내해주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함께 모색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떨쳐낼 때까지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 나는 아직 떨치지 못했다.

학생8, 고3, 여> 나는 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선생님들 수업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항상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인정받았었다. 나 스스로도 그런 줄만 알았다. 대학 입시가 시작되고 나는 자소서도 면접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해냈었다. **하지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본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1학년 때 좋지 않았던 성적에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합격이라는 벽 앞에 스스로를 엄하게 채찍질하였다.** '내가 이거밖에 안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대충하고 살 걸'이라는 후회만 떠올랐다. **내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들의 시선이었다.** 명성이 낮은 학교에 간다면 '쟤 거기갔대' 라며 손가락질을 해댈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무서웠다. 나는 항상 타인의 칭찬과 사랑으로 길러진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등을 돌리는 모습이 죽어도 싫었다. 10년 넘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입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수치화되어 나를 그저 하나의 평가대상으로만 인식한다. 억울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지금, 나는 아직도 불안에 떨고 살아가지만 타인의 시선을 저버리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럴 수 있을까?

학생9, 여, 고3> -전략- 대학에 가면 자연스럽게 직업을 갖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을 만큼 대학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학생10, 여, 고3> -전략-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서 이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무기력해지고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서 내 마음과 정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도 날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매일 나 자신과 싸웠다. 나 혼자서 내 마음을 달래주고 매일매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겼다. 나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는다",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내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거나 수용된 적이 없는 감정들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상실한 것들을 탐색하게 하고 직면하게 한다. 자신이 무엇을 상실했으며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며 새로운 단계로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아래에 제시된 학생11의 글은 어른들의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내기도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글이다. 정제된 글쓰기를 벗어나 자신의 내밀한 정서를 들여다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고민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해당되는 주제가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되고 사유되었을 때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문학적 잠재성과 예술성의 발현 가능성을 교사는 신뢰하고 지도해야 함을 깨닫는 지점이었다.

학생11, 고1, 여> 나는 민들레이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는 곳이 다르고 해야 할 것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의 오늘이한테 물었다.
'너는 어두운 곳에서 손에 손전등을 들고도 어른들이 밝혀주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
그러자 오늘이는 말했다.
'어른들이 자기가 밝혀주는 길이 가장 옳다고 했어'
다시 나는 말했다.
'너의 손에 손전등이 있으니 그것으로 주변을 밝히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면 안 되니?'
그러자 오늘이는 의문을 갖고 말했다.
'다른 길이 있어?'
나는 계속 말하였다.
'어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야. 심해어처럼 하나에만 기대어 움직이지마.'
그러자 오늘이는 말했다.
'주변을 밝혔는데 그곳에 길이 없으면,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떨어지는 절벽이면, 내가 들고 있는 손전등으로도 밝혀지는 곳이 아니면 어떡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는 확고한 말투로 말했다.
'겁부터 내지 말고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자 오늘이는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나도 민들레로 존재하는 오늘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다.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외적 갈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표현 글쓰기에서는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식의 글쓰기가 아니라 갈등 자체를 다독이는 단계로 나아가거나 그 갈등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했다. 실제로 구전이야기를 연행하고 글을 쓰는 활동은 삶에 대한 '답'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삶에서 의미있는 질문을 하도록 이끄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2. 감정의 발산 : '통곡'의 실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떠도는 슬픔과 아픔은 심지어 너무나 명확하게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사회적인 조건에 있는 경우에도 이는 쉽게 외면되며 그 고통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 금지된다.[131] '말할 수 없음'의 억압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다. 외면당한 우울의 징후는 개인의 삶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제대로 울지 못해서 생긴 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 집중하는 글쓰기 자체가 고민 해결의 답이 되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글쓰기 경험이 자신에게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는 존재들에게 글쓰기는 자기 위안의 가능성을 재인식하며 설령 문장과 어휘 사용이 서툴더라도 관성화 된 글쓰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에 초점을 맞추며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표현주의 쓰기 이론은 삶과 직결

131)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43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되는 글쓰기[132]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지점이다.

<원천강본풀이>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통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느끼는 슬픔, 서글픔을 풀어내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오늘이의 통곡은 학생들이 울어도 되는 이유가 되었으며 통곡 이후에 찾아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다. 교사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잘 써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진짜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한 줄이어도 괜찮다는 방향으로 지도하였다. 아래의 글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을 써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생12, 고1, 여>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일만 계속 생각하지 않고 이 일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혼자가 아닌걸 알면서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는 최대한 바빠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이'처럼 울고 싶었던 나에게 울고 싶으면 소리내어 울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맨날 조금씩 흘리는 눈물보다 소리내서 우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후략-

> 학생13, 고1, 남> 항상 놀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었던 나에게
> 나는 맨날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왜 공부를 해야하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진짜 공부가 하기 싫어.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찢고 다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 그래서 공부를 대충대충 하고 놀고 자기만 했던 내가 한심했고 앞으로 뭐하면서 살아야될지 고민도 많이 했다.** 시험보고 성적이 안 나올 때 더욱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 앞으로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막상 잘 되지가 않아서 짜증나고 울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나는 혼자 내던져졌다고 가끔 생각하기도 했다.-후략-

---

132) 이재승,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281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생14, 고1, 남> 안녕 오늘아, 넌 왜 공부를 안 하니. 커서 뭐라 되려고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니. 공부 안 하면 돈도 못 버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 여지껏 운이 좋았다고 나중에도 운이 좋을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근데 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하지 말고 흥청망청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계획없이 살아!!**

학생15, 고1, 여> 안녕, 00아. 내 안에 있는 오늘아. 오늘도 수행평가, 숙제, 학교 생활을 하느라 힘들었지? 충분히 지금 넌 누구보다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어깨 쭉 펴고 살아! -중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아갈 필요 없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 널 믿어. 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야. 받은 사랑들 너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 꺼내고 싶었던 말이 내면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문제집을 찢고 다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공부하지 말고 흥청망청 살았으면 좋겠어.”,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더 계획없이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와 같이 공통적으로 필자 주체가 현재 욕망하는 것이 그대로 터져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써야만 했던 형식화된 글쓰기에서 벗어나 다소 거칠더라도 삼켜왔던 말들을 꺼내는 작업은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감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학생16, 고1, 여> 안녕? 내 안에 있는 오늘아, 요즘에 많이 힘들지? 엄마랑 싸워서 힘들고 공부(대학) 꿈에 대한 압박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계속 이겨냈으면 좋겠어. 지금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접고 이 고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너는 너고 그 사람들 지나가는 바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무섭거나 그러면 도망치는 습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이 습관 때문에 오해나 안 좋은 소문이 생기고 너가 또 힘드니까 고쳐보자.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너가 힘들 때나 우울할 때는 마음껏 울어도 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꾹꾹 안 참아도 되고 꼭 참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울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되거든. 00아, 오늘도 고생했어. 계속 힘내자구.

학생17, 고1, 여> -전략-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이쮸 같은 사람 같아. 손으로 만져봐도 입에 넣어봐도 처음에는 딱딱하잖아. 그래도 알고 보면 사실 뭉개질 정도로 말랑거리고... **그래서 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 나는 내가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해. 요즘은 즐겁지만 마음이 공허해. 벌집같아. 꽉차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내가 잘해도 다들 떠나가더라고. 마음을 주기 무서워.** 내 마음을 가지고 놀까봐. 그래서 아직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한 것 같아. **그래도 힘들면 힘들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못하는 내가 밉지만 그러고 싶어.** 차곡차곡 쌓는 것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 앞으로 내 안에 있는 오늘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웃을 수 있는 오늘이길.

학생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학생16), 표면적인 관계를 붙잡고 있던 자신을 성찰(학생17)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고 싶었던 자신에게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는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되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글을 통하여 통곡이 허용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감정이 해소됨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18, 고1, 여> 00아, 아직도 많이 아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갑자기 우울하고 저녁만 되면 슬프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하게 됐어. **원래는 우울할 때마다 슬픈 노래 듣고 자해 사진도 찾아보고 자해도 해봤잖아. 그런데 어느날 내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지금 내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왜 이리 슬프고 죽고 싶지. 그래서 내 과거를 되돌아봤어. 그랬더니 너무 어릴 때부터 외롭고 슬픈 날들을 너무 오래 보낸거야. 그래서 그 슬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서 슬퍼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남이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걸 고쳐줄 사람은 너 자신이야. 개그 프로는 우울함을 잠깐 잊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슬픔들을 점점 나아지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하려면 내 자신을 이해시켜야해. “너의 과거는 너무 아팠잖아. 근데 그 아픔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의 삶이 슬퍼지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너의 콤플렉스나 이런 것도 좀 위로해줘. “너는 다른 사람 말에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지금 옆에 친구가 널 싫어하게 될까봐 참으면서 더 잘해주고 **너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시켜줘. 자기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안아주자.**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가 존재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압해오거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 통곡하지 못한 이 감정의 에너지는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 삶을 갉아먹기도 한다. 학생18의 경우 자신의 현재 상태가 그렇게 슬프지 않음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를 찾아 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자신의 슬픔은 어릴 때부터 축적된 것이며 그것이 처리되지 않아서 현재도 갈등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기 고백과 치유를 강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어 보는 수단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어루만지는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3. 주체성 회복 : ‘자기’에 대한 위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에 내몰린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쓰기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은 획일화된 글쓰기 습관, 강제적인 쓰기 상황에 내몰리며 갖게 된 쓰기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희[133]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타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글쓰기’, ‘표준과 규범에 얽매인 글쓰기’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다. 자기 안의 언어에 주목하기보다 타자의 언어와 표현

133)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14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에 얽매여 글쓰기 활동을 영위해 나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쓰기 교육이 학습에 필요한 쓰기 능력의 신장을 가로막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표현이라면 '표현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며 이것의 왜곡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탐색'은 무의식적 상실을 발견하고 이를 재환기함으로써 '애도'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134] 개별 학습 주체들이 고유한 개별 존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며 거대한 사회의 흐름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준비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학생19, 고1, 여> 나는 나를 종종 모를 때가 있다. 사실 종종이라기보다 거의 모를 때가 많다. 어느날은 화가 많이 나고 어느날은 서러워서 미칠 것 같은 날이 있다. **나는 이런 내가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휩쓸려가는 게 너무 싫었다.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많아서 잘 운다는 것은 나에게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이 컸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나는 많이 울어서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걸까. 나는 혼자 울 수는 있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기 싫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면 꼭꼭 감추고 마음 속안 깊은 곳에 넣어놓았다. -중략- **나는 아직까지 나의 강점을 말하고 우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오기까지는 수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싫고 밉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다보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후략-

> 학생20, 고1, 여> 지금도 그렇지만 여태 많이 힘들었지? **중2때부터 몇 개월째 지속되던 왕따에 몸부림도 쳐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진심으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잖아. 우린 하나라며 내 편이라며 얘기해주던 가족마저도 내가 문제라며 날 고쳐서 그 애들에게 맞추려 했었고.** -중략- 나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주었지만 지금의 내가 행복해진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있지. 한편으론 미안하고 죄책감도 느껴도 선택에 후회는 없는 거잖아. 그 때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싶단 생각을 했었음에

134) 김영희, 「'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대학 신입생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11권0호, 한국작문학회, 2010, 100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도 상담 받으며 이상한 애 취급받고 전교에 소문이 나서 믿을 사람 하나없이 혼자 꿋꿋이 버텼잖아. **그 때 혼자 울지도 못하고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오늘이처럼 혼자인 것 같았어도 지금의 너에겐 주변에 좋은 사람도 가득하고 소중한 내 편이 있어. 많이 외로웠지. 혼자란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을거야. 어렴풋이 기억에 남게 되더라도 이젠 혼자란 생각 없이 내 주장, 내 생각 당당히 펼치며 지내기로 하는거야. 몇 년 뒤에도, 몇 십년 뒤에도.

학생21, 고1, 여> **나는 생각보다 무책임하다. 내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 한번도 그 일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항상 내 주변에 떠넘기거나 무조건 도움만 청하려고 한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어도 보았고 정말 답이 없을 땐 자해도 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한다고 답답한 게 풀릴까?'였다. 그냥 하염없이 몸에 상처를 내면 결국 남는 건 흉터밖에 없을텐데 지금도 흉터를 보면 힘들었던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더 힘들었던 것은 자해하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었다. 나도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싫었다. 그저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마저도 외면해 버리니 큰 벽이 하나 세워진 기분이었다. -중략- 내 안의 나에게. **힘든 거 알아. 지금은 버틸 수 없이 많이 힘들겠지만 분명히 또 행복한 순간들이 올거라 나는 믿어. 힘들 땐 울어도 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자신을 믿고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살자. **내가 응원할게.**

학생22, 고3, 여> 내가 소망하는 미래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자존심이다. 나는 학교 내신공부에 적합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줄곧 최상위권이었다. 지방 일반고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이었던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스스로도 그런 자존심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공부는 내 인생에서 별로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그림을 만났다. 그림은 공부와는 다르게 십 년 이상을 바칠만한 가치,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단순 암기에 적합한 나의 뇌 구조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 잘 그린다는 얘기도 들을 수 없고 (못 그린다는 말이라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인정박을 수도 없다. 그저 노력해야 하는 일일 뿐이었다. **쉬워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 남들에게 인정받아왔던 기억과 '초보자'가 되기 싫다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초보자'가 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조금은 내려놓아야겠다.**

학생19-22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각자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인정하고 '자기'와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해나간다. 마음껏 울지 못하는 나(학생19), 왕따의 경험을 끌어안아야 하는 나(학생20), 자해하는 나(학생21), 인정 욕구를 내려놔야 하는 나(학생22)와의 대면은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며 화해의 손길이 된다. 또한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긍정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를 소망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과의 화해 시도는 자기 긍정성을 발견하는 기회이며 자기 위로를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주체성을 등장하게 한다.

학생23, 고3, 여> 9월, 10월, 11월 고3 입시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돌아보면 담임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난 그 세 달간을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며 서럽게도 울었던 것 같다. **아마 난 누군가 내 인생을 준비해주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크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줄곧 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가끔은 왜 공부를 하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고 분명 꿈은 정했는데도 적극적이지 못 하고 '선생님께서 정해주시겠지', '친구들이 도와주겠지'와 같이 안일했던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생활과 기록이 모두 부정받는 느낌이라 겉으로는 덤덤한 척 '기대 안했어', '괜찮아', '수능 잘 보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슬프지만 표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의 좌절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합격대학과 예비번호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다림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진실된 조언과 친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들과 부모님의 응원으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적극적이지 못 하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응원해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좀 더 타인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 또 다짐한다.

학생24, 고3, 여>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신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끝난 지금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것이 대학교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학교를 통해 좋은 친구들, 선생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추억들보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만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어느 대학교에 붙었는지에 따라 '쟤 공부 안하고 놀았구나'라고 평가되는 것이 싫다. 대학교 하나로 그동안 노력한 것이 평가된다. 내 꿈은 유치원 교사이고 최종목표는 아이들에게 나눔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결과로만 내가 정해지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세워 이루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학생25, 고3, 여>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내가 정확히 무얼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기력과 함께 게임으로 보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났고, 매일 자책하면서도 하고싶은 일이 없어서 또 게임을 했다. **이것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나에 대한 책망이 커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끊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무언가를 한 기억도 게임밖에 없었다.** 이쯤 되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작정 웹툰 작가라는 꿈을 갖고 캐릭터들을 그렸다. 그런데 잘 그려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어서였던 것 같다. -중략- 그래서 수시1차는 반쯤 포기했었는데 기적같게도 1차면접 합격 통보가 왔다. 너무 신났다. 그런데 2차 면접을 준비하려고 예상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외우지 않고서야 대답을 도무지 못 할 것 같았다. **나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유들을 찾아다녔다.** 학원을 끊고 혼자 인터넷으로 애니메이션 감독들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보고 제작 과정도 찾아보면서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느꼈다. 수시 2차에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당연히 절망스러웠다. **그래도 하루만 좌절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고, 바로 다음날 같이 애니메이션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하는 친구와 팀 작품을 내년까지 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얼하고 싶은지를 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의미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깝지만 그만큼 게임에 대한 미련도 없다. 비록 재수를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쁘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23은 자신의 진로에 있어 의존적인 태도로 임한 것을 성찰하며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 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응원해줄 수 없다'는 의미있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 글에서는 누군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었음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나의 삶'이라는 주체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안의 타자'를 탐색하고 수용하며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24는 '어느 대학에 갔는지만 궁금해 하는' 사회를 꼬집는다. 성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식하면서 학습자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세워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이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왜곡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사회가 내리는 평가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학생25의 글은 부모님과의 마찰, 내적 갈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전하면서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유들을 찾아다니는' 가지 탐색의 과정을 거친 자아는 입시 실패를 경험했지만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기쁜 나를 갖게 된 것이다.

자기표현 글쓰기는 학습 주체를 글쓰기의 억압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며 자기표현에 대한 의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돕는다.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기술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감정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는 개별 주체가 가진 감정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사회적으로 재해석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자기 위로의 단계로 글을 마무리를 하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그 문제가 진행' 중임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입시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이제 사회로의 입문을 직접적으로 앞둔 대상자들로서 느끼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필자 역시도 내신 입력 기간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을 진행할 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입시라는 목적이 강하게 지배하는 고등학교 수업은 입시가 마무리되는 순간 그 목적이 사라진다고 교사도 학생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마치고, 10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통찰할 필요가 있다.

학생25의 글에서 보듯 진지하게 자기 탐색의 여정을 거친 학습자는 자신이 마주한 결과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으며 주어진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오히려 입시가 끝났으니 자습을 하거나 영화를 보라고 말하는 교사들에게 그럼에도 오늘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임을 따끔하게 외치고 있다.

> 학생26, 고1, 여> 방황해도 괜찮아. 그것 또한 목적지인걸.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걷다가 너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춰도 돼. 그곳 또한 또 다른 목적지이니까. 뒤로 가고 싶으면 뒤고 가고 되돌아가고 싶거나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을 때 고민하지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이 곧 목적지니까.

교육은 삶에 필요한 질문을 품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그 질문들을 풀어갈 힘이 '자기'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도 다양하게 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솔루션이 넘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26의 글처럼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이 그 길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이처럼 빈들을 헤매는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길을 걷다가 잠시 쉬어도 되고, 다른 길로 가봐도 괜찮다고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특히 학생26의 글에서는 위로의 대상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Ⅴ. 결론

삶에 대한 사유는 문장을 탄생시킨다. 그러므로 삶을 생각해볼 시간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자기만의 문장을 엮어낼 힘을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옛날부터 흘러온 구전이야기를 통하여 삶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 내고, 문학을 통해 내 삶에서 건드려져야 하는 영역들을 발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쓰기 교육의 경우 국어 영역 내부 안에서 다양한 통합적 학습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쓰기 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전이야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를 통해 정형화된 글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직면하여 '자기'와 화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필자의 주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표현 글쓰기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29명과 고등학교 3학년 18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지와 쓰기 활동지를 구성하여 도구로 활용하였다. 문학교육 속 구비문학 교육은 위축되어 있으며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비문학의 개방적이고 연행적인 특성이 학습 현장에서는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교과서라는 한정된 대상에 담아내는 것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글쓰기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문학 텍스트를 발굴하고 선별하는 것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바이며, 교실에서 문학 작품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국어 하위 영역 간의 통합 수업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전이야기 <원천강본풀이>는 본질적으로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연대, 관계 맺음을 전하는 서사로, 빈 들에 홀로 솟아난 '오늘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현재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게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숙명적인 물음을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원천강본풀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기 서사가 되는 것이다.

1,2 차시로 진행된 '내 안의 오늘이에게 편지쓰기' 활동은 학습 주체가 글쓰기에 대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동기를 회복하고 자기 경험을 의미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참여형 교수·학습 방향과도 일치하며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는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3항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훈'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구전이야기가 연행되며 보여주는 힘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구성하였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얻으려는 세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을 품게 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에 진행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표현 글쓰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표현 글쓰기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교수자의 불안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이끌어 내려는 직접적인 시도와 질문들이 있었다. <원천강본풀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보다 강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 후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학에 반응할 기회를 주고 글쓰기의 주제도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쓰도록 큰 범주로 제시하여도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6월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물에 대한 분석은 모둠활동을 통하여 토의하도록 하고 교수자는 이를 정리하고 보완하며 의미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쓰기를 위한 질문은 내용 이해와 자기 탐색으로 분류하여 질문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모둠활동과 개별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 안에 억압되어 있고, 외면당했던 것들을 보듬고 끌어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도 아직 타인의 시선과 싸울 자신이 없어서, 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생들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동안, 사실은 관계의 상실로 불안했고, 성적으로 등급화 된 자기 자신에 절망했고, 부모라는 존재를 때로는 짐으로 생각했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를 택해야 했던 '비정상'의 상황을 감수하는 '자기'를 그대로 표출해보고 화해하기도 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천강본풀이>는 결국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결핍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나의 어제와 내일이 담긴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동행하는 것,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나'를 발견해가는 것이 이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남아 빛나는 이유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구전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교육 담당자들의 과제일 것이며, 청소년들이 다시 글을 향유하도록 연구하며 시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영희,『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김헌선, 현용준, 강정식,『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사, 2006.

서대석 엮음,『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서정오,『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2017.

신동흔,『살아있는 한국신화』, 서울:한겨레출판, 2014.

아카마쯔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공저, 심우성 옮김,『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이수자,『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태학사, 1998.

이영만,『통합교육과정』, 학지사, 2001.

이윤석·허경진·박무영·박애경·김영희,『한국 고전문학 읽기의 맥락과 지평』, 민속원, 2015.

장주근,「설화편」,『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한상철,『청소년학 :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04

현용준,「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1면.

Peter Elbow,『힘있는 글쓰기』, 김우열 옮김, 토트, 2014.

2. 학술지

고은임,「<원천강본풀이>연구:“오늘이”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관악어문연구』35, 2010.

권복순,「고전문학 :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0), 2015.

권복순,「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의 인물 기능과 우주 인식」,『국제언어문학』(35),2016, 83-107.

김권호,「교과서 수록본 <오늘이>의 비판적 검토」,『우리말교육현장연구』6(1), 우리말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육현장학회, 2012.

김명순,「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고려 양상」,『국어교육학연구』41, 국어교육학회, 2011.

김명석,「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김명옥,「원천강본풀이 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그림책 중심으로-」,『동화와 번역』22(0), 2011.

김미란,「표현주의 쓰기 이론과 대학의 글쓰기 교육」,『반교어문연구』35, 반교어문학회, 2013.

김영희,「'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대학 신입생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작문연구』11권0호, 한국작문학회, 2010.

_____,「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구비문학연구』34권0호, 한국구비문학회, 2012.

_____,「'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문학치료연구』36권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김유진,「<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아동청소년문학연구』(6), 2010.

김정란,「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비판적 검토와 지도 방향 모색」,『작문연구』20, 한국작문학회, 2014.

김창원,「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과제」,『청람어문교육』5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4.

김창원,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1), 2016.

김현정,「표현주의 이론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과 의의 - Peter Elbow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김혜정,「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한국무속학』2, 2010.

나경수,「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은미,「표현주의에 토대를 둔 대학 글쓰기 수업의 한 방안」.『한국어학』65, 한국어학회, 2014, 117-146.

박영민,「2015 국어과 교육과정 작문 영역의 쟁점과 과제」,『국어교육학연구』51(1), 국어교육학회, 2016.

박종임,「국어과 쓰기 영역 '과정 중심 평가' 구체화를 위한 관련 용어 및 특성 고찰」,『작문연구』39, 한국작문학회, 2018.

박현이,「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서해숙,「멀티미디어시대 설화문학의 교육적 재구성 방안」,『남도민속연구』26(0), 남도민속학회, 2013.

신동흔,「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15(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신선희,「구비설화 다시쓰기와 새로운 상상력」,『구비문학연구』29, 2009.

신원기,「설화(說話)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국어교육』120(0), 한국어교육학회, 2006.

오세정,「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다시 쓰기의 문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4), 2014.

오세정,「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 : 설화교육 연구의 경향 검토와 방향 모색」,『청람어문교육』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오윤선,「국어 교육 방법의 외연적 확장 : 고전문학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 활용 일고찰 -교과서 제재 학습활동 사례를 중심으로-」,『청람어문교육』5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유정월,「<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한국고전연구』42, 2018.

이광자,「원저(原著) : 원천강(袁天綱)본풀이(本解)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심성연구』29(1), 한국분석심리학회, 2014.

이경우,「고등학교『문학』교과서의 구비문학 교육 연구」.『과학과 문화』2(3), 2005.

이명현,「<오늘이>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화적 대안 - <원천강본풀이>를 재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석한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 」, 『동아시아고대학』 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이명현, 「고전소설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글쓰기」,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학회, 2015.

이봉희, 「감정 그리고 글쓰기」,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지』6, 한국독서치료학회, 2008.

이상구, 「국어과 교과서의 장르 지식 제시 양상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 『배달말』63, 배달말학회, 2018.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2011.

이은미,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자전적 쓰기 교육의 방향 연구」, 『리터러시연구』16,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이인경, 「<구복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 32(0), 2007.

이정찬,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의 비판적 검토 - 수사(修辭)와 탐구 그리고 정체성 -」, 『작문연구』 33, 한국작문학회, 2017.

이종호, 「문학 : 서사무가 <원텬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온지논총』 27(0), 2011.

이재승,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이재승,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작문에 대한 세 가지 가치론적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8, 2008.

정미경, 「표현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51(0), 2014.

조윤형, 「구전설화의 교육적 가능역(可能域) 연구 -그 소통의 "구술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75-211.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0), 남도민속학회, 201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최숙기,「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작문 평가 도구 개발 방안」,『작문연구』39, 한국작문학회, 2018, 371-399.

최숙기,「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작문연구』5, 한국작문학회, 2007.

최원오,「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어문학』106, 한국어문학회, 2009.

최인영,「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자서전 쓰기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최종윤,「초등학교 과정 중심 작문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작문연구』 39(0), 한국작문학회, 2018.

허연주·박형준,「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고등학교 1학년『국어』교과서 11종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황혜진,「자기표현의 글쓰기 전통과 교육적 창신」,『어문논집』82, 민족어문학회, 2018.

Flower,L & Hayes,J.R.「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32(4), 1981

3. 학위 논문

김민수,「<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신선희,「자기 탐색을 위한 표현적 글쓰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

장만식,「설화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방안 :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어교육전공, 2005, 2.

황희우,「구비문학 교육 연구 : 2011 개정 문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7.

4. 교과서 및 교육과정 자료

교육부,『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2015-74 [별책 5]』, 교육부, 201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고형진 외,『고등학교 국어』, 동아출판, 2017.
류수열 외,『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2017.
민현식 외,『고등학교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7.
박안수 외,『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017.
박영목 외,『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17.
박영민 외,『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017.
신유식 외,『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2017.
이삼형 외,『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017.
이성영 외,『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17.
정　민 외,『고등학교 국어』, 해냄에듀, 2017.
최원식 외,『고등학교 국어』, 창비, 201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부록 : 학생 글 자료

① 학생1의 글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전강론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안녕 ☐아 ? 벌써 내일 또 모의고사야 ! 모의고사도 밥아지.
수행평가 챙겨야지, 내신 관리도 해야되지 중학교 때 보단 정말
힘든 것 같아 ! 혼자 집에서 울어보기도 했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중간고사보고선 항상 많은 생각이들어. 내가 원하는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등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행평가도 중학교에 비해
너무 많고, 점수도 잘 안 주는 것 같아. 다시 중학교때로 돌아가고싶어. 매일 힘든
날이 없는 것 같아. 요번에 개말고사가 또 있는데 너무 괴롭히기가 싫어.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어. 그냥 놀고만 싶어. 하는김, 요번에 꼭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성적 좋게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꼭 간호사가 되어서
부모님아플때 간호해드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주자.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빼주어~~ 버푸어야 할 시간이야. 꼭 열심히
화이팅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 갖길바래! 신은 항상 내 곁에서
도와줄것이라고 믿어요!!!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지금까지 17년동안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의 장단점도 잘모르겠고 나는 어릴부터 입마가 내성적이고 부끄럼을 많이 단단는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더 내성적인것을 이겨내기 위해 더 사회에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에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덜 내성적일까라는 생각이나 공부를 더많이 생각하는 것같다. 그래서 나는 내 진로를 정했지만 그것도 내 길인지도 모르겠고 자서전이나 자기소개서를 적을때 나에대해 적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잘모르는것같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때 항상 나는 나 자신을 적게 보다는 나보다 내가 되고싶은 그런 사람에게 비중하게 적는 경우가 많은것같아. 나는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알고싶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인해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한 계기가 없는 것같다. 나는 항상 나를 알아보려고 하기 보다는 나를 더 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며 살는 것같다.

나의 내성적인 이미지는 엄마때문에 만들어 진것같아. 말이 늘었던 알아라 더 내가그런것 같아. 나는 어머니로부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리고 순항승. 성격은 관찰도 편안 한데 나는 나로으로게 무언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것 같아. 그래서 항상 손톱을 깨물고 초등학교 때까지 손가락을 빨았던것같아. 짐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을 하는지로 모르겠고 그런데 나는 아직 나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슬픈일이 있거나 힘들때 얼굴한테 말을 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안되 다른사람한테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 방에서 울거나 속에 담아두는데 이러면서 더 혼자가 된것같아.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지도 좀 두려워.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적은 나몽중에도 내가 아닌 내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판단하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얼고 싶고 우리나라가 왜 아니 공부때문에 안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해 난 정말 나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더 나은 삶을 살거야.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반 번 이름 =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신을 믿지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는다
믿지않는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만 또다르지는 않는다라고 해야할것이다
누군가 내게 좋고 좋은 물건을 준다면 나는 내 자신은 팔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라는 의심하고 실행할 때가 있다. 내갈길을 '나'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는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걱정하도록
만드는 '나'를 증오하게도한다. 그러면서 '내'가한 일에
자랑스러울때 '나'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지 생각하게한다.
이문제에 모순이다 하지만 다이나미에르를 만든 노력은 칭찬받아야
제정했고 "나의 발명품이 평화조약보다 더 큰 거짓평화를 이룰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전쟁이 무서워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겠지만
모든게 죽어 싸울것이 없지않았다고 해석될수있다.
세계는 의심하고 회전해지라고한다. 누구를 믿어야할지 일다

정확, 감옥. 누구를 믿어야 한다 인권선언, 세뇌
나는 여러가지것들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의미없다'도 의미가있지않을까
나도내의 의미가있다.
나는이글을 고민을적은것에대해 생각한다 쓰고나니 마음이 한결가벼워진
것같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떠로는 '장상'과 '메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①

모든이들 같은상황이라고 하기엔 미흡한점이 있는것같다. 은인는 자신이 홀로 있다고 느꼈지만 곧 자신이 하야했것이고 위로보다 자신의의지로 계속 이어나갔다 않는 옥곰를 찾았다. 무언가 하고싶은 욕구와 해내고 스윈는 의지가 가장 부족하다. 계시 인생선을 학교를 다시며 여러가지를 배웠겠지만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었고 있다해도 현실적인 취업이 안되서 흐른 돈이 부족하여 아빔 너무 실패할까봐 막연한 걱정때문에 못하게 너무 않다. 매번 시험무에 써내는 진로희망은 고데 생활이 많아서 적당히 써서 넣고 끝만 하다가 혼자 걸로 정해서 학대 공부해 본적이 없었다. 지금 정한 진로도 주변의 질문을 고대로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음해로 과주 놓아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먹지도 데이것을 알지만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혼자 이겨내서 이겨야 하는 이런상황을 겪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여기까지 왔다. 남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확실히 좋아해서 학과공부를 하면서 나는 그게 전혀 안되기 때문.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찾은 것도 아니고 적성이 어떤 건지 없어 살아왔던터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확실히 말하면 남들과 동떨어진 느낌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다. 말로는 혼자 살아온 것만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 드는게 힘든것같다. 부모님께 내가 하고 싶은것을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말이 믿을 수 없었다. 대출 학교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닌다고 생각이 전공을 정하려니 너무 막막한 문제였던 것같다. 그렇다고 해서 해보고 싶은것이 대해 뚜렷 하지도 않았던 것도 아니다. 절충적한적 했다가 하나니 취업이 안되면 어떻하나의 문제로 전공 혹은 검색에서 흥미로 조금을 자기 합리화 하면서 생각하고 싶은적 했다. 이문제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내리고 싶지않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적당히 내 전공에 흥미감을 갖고 그렇게 산다한들 이상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는것 하면서 적당히 사는게 좋고 취미생활로 충분한 학력으로 얻을수 있는 산업이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곳 어디선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해도 사회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 만족하고 지내기로 했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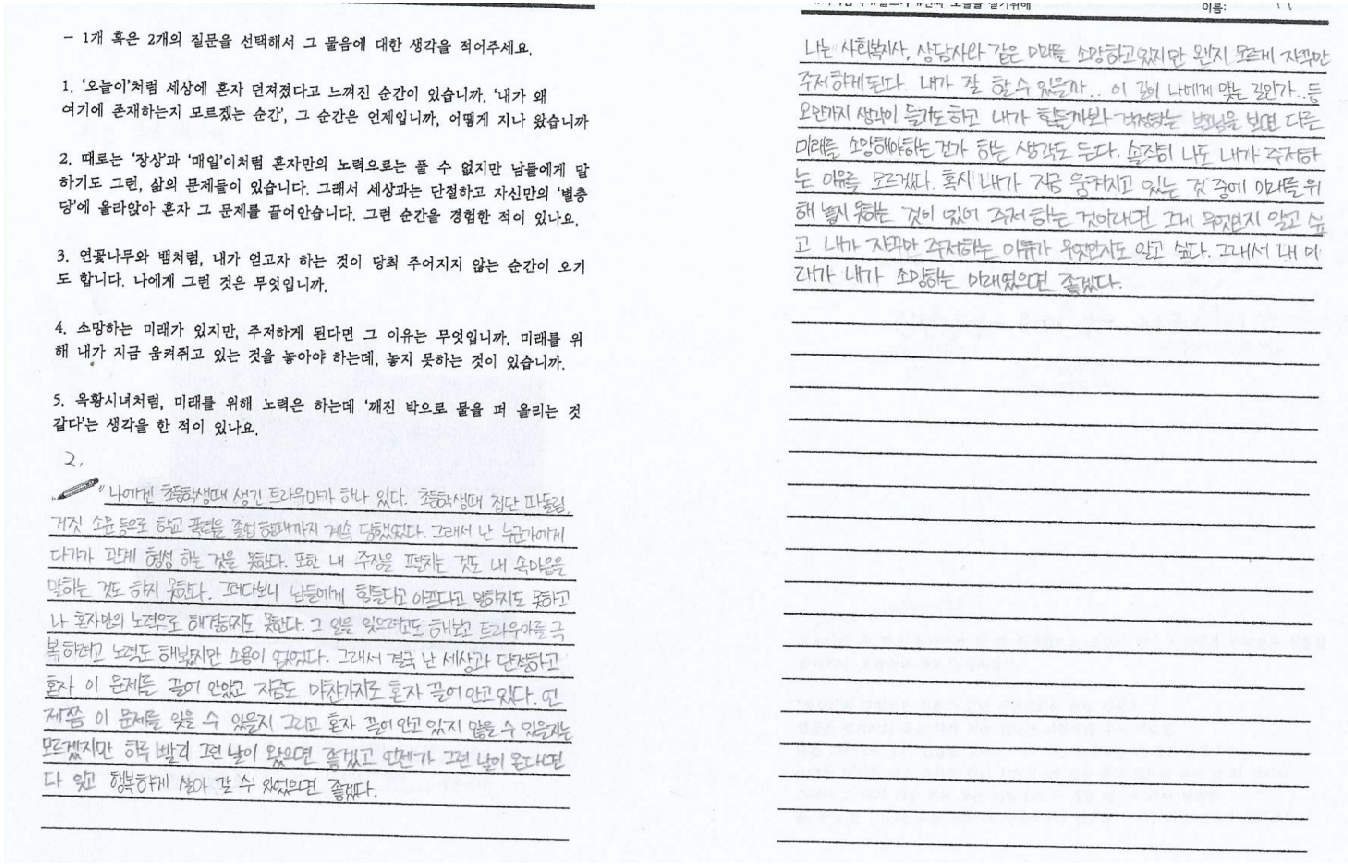
3. 연꽃나무와 뱁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육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이가 육현감으로 오면서 만났던 인물들을 생각해봤는데 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는다. 이런 순간을 경험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니 교우관계, 가족, 성적 등 나 혼자 끙끙 앓고있던 스트레스를 조금 숨이 탁 트인 것처럼 시원하고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을 상상해보라고 한다면 차마 관찰하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늘 속상하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으셔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누가 내 마음을 날카롭게 긁는 느낌이 든다. 아빠께서는 혹자 한번 나면 골도 덥이 날카로운 말을 하셔서 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어도 내 귀에는 다 나대로인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 엄마는 아빠와 사우고 나서 항상 아빠가 이런 말을 해서 속상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 생각으로 엄마를 위로했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로 스크래치가 난 것 같다. 지금은 누군가를 위로해줄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냉정해진걸까.. 엄마는 이런 나를 보며 냉정하다고 말했었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어도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 가끔 일주일에 1번은 싸우시는데 이전 과정없이 나의 일상이라 그저 빨리 끝나길 손꼽아 기다린다. 내가 싸움을 말리면 왜 말리냐며 싸움은 항상 더 커져서 결말을 수 없게 된다. 항상 욕으로 끝고 당황함을 느낀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철없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동생만 남으니 잘 챙겨주라고 하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감의 무게가 점점 더 크지 느껴지는게. 항상 한결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예뻐하고 살아야 한다. 다 몰은 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난 아직도 모르겠다. 착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예뻐도 하고 다 해놓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것이 너무 작아서 '나' 라는 존재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진다. 내가 나이를 먹고 이 질문에 다시 글을 작성해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답을 쓸 수 있을까요?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2.

" 나이개념 초등학생때 생긴 트라우마가 하나 있다. 초등학생때 친한 친구들 거짓 소문 등으로 학교 폭력을 졸업 학년때까지 겪을 당했었다. 그래서 난 누군가에게 다가가 관계 형성 하는 것을 꺼린다. 또한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내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남들에게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일을 알으려고도 해보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이 문제는 끌어 안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혼자 끌어 안고 있다. 언제쯤 이 문제를 잊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혼자 끌어 안고 있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름:

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와 같은 미래를 소망하고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주저하게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등 온갖까지 생각이 들기도하고 내가 힘들거나 위기상황는 본인을 보면 다른 미래를 소망해야하는 것과 하는 생각도 든다. 솔직히 나도 내가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내가 가장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이 미래를 위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이 주저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내가 자꾸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그래서 내 미래가 내가 소망하는 미래였으면 좋겠다.

#자기탐색 #글쓰기 #순간 오감을 살리며에 이름: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풀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2. '때로는 장상이처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질문에 적혀있듯이 적을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쥐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에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 초라하게 된다. 물론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딱히 고립된 이유X ←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때문에 항상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자기탐색 #글쓰기 #순간 오감을 살리며에 이름:

내가 그 것을 떨쳐낼 때까지 계속 안고 살아야한다.
그래서 매번 몇번씩은 경험한다. 나는 아직
떨치지 못했다.

3. '연꽃나무와 뱀처럼, ~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 걱정 없이 돈 걱정없이 놀고 여행다니고 ** 좋아하는 일
하는 것.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장상'과 '대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면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선생님들 수업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항상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인정받았었다. 나 스스로도 그것만 알았다. 대학 입시가 시작되고 나는 자소서도 면접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해냈었다. 하지만 불합격이라는 통고를 본 순간 눈 앞이 아찔했었다.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다수하게 되었고 1학년 때 초지 않았던 성적에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합격이라는 벽 앞에 스스로를 무능하게 체찍질하였다. '내가 이까짓에 만 돼?'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대충하고 살 걸'이라는 후회만 떠올랐다.

나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들의 시선이었다. 명성이 낮은 학교에 간다면 '재 거기 갔대'라며 온갖 걱정들을 해댈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무서웠다. 나는 항상 타인의 칭찬과 사랑으로 길러진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등을 돌리는 모습이 죽어도 싫었다. 이로이 남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입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수치화되며 나를 그저 하나의 평가대상으로만 인식한다. 억울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지금, 나는 아직도 불안에 떨고 살아가지만, 타인의 시선을 제쳐두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럴 수 있을까?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창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벌충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4. 내가 되고 싶은 이유로 새로 꿈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는 건, 꿈인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경쟁률에 비해 봉노 인원이 적고, 만약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내가 아나운서 이외에 해 보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 싶은, 이제 정말 대학생이 되어서 직업을 찾아갈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너무 큽니다.

대학에 가면 자연스럽게 직업을 갖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되는 것을 만큼 대학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창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별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욕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2번.

나는 남들이 하지않는 특별한? 악기를 전공한다. ~~우리학교에서는~~ 아직 학교의 사람만 하는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내 처지와 내 마음을 아무 사랑은 나 자신 밖에도 없는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혼자만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느꼈다. 남들은 다 공부하랴 면접 준비하랴 또는 등등 취직에 관심이 쏠려 있었을때,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서 이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 하루가 지겹고 무기력해지고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서 내 마음과 정신이 망가져 버리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도 날 알아주고 관심가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매일 나 자신과 싸웠다. 나혼자서 내 마음을 달래주고 매일 매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위해 감정을 숨겼다. 나는 답답해서 미칠것 같았다. 그럴수록 해서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에게 말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내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전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만들레이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이 다르고 해야 할것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의 오늘이한테 물었다.

'너는 어두운 곳에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아픈들이 밝혀주는 곳만 가려고하니?'

그러자오늘이는 말했다.

'어른들이 제일 밝혀주는 곳이 가장 좋다고 했어.'

다시나는 말했다.

'너의 손에 손전등이 있으니 그것으로 주변을 밝히면서 다른길은 찾아보면 안되니?'

그러자 오늘이는 의문을 갖고 말했다.

'다른길이 있어?'

나는 계속 말하였다.

'어, 모든 것에는 여러가지길이 있어 이동에 가려져 있어서, 네가 시도를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야. 참아내지점 하나에만 기대서 움직이지마.'

그러자 오늘이는 말했다.

'주변을 밝히면 그곳이 길이 없으면,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떨어지는 절벽이면, 내가 들고 있는 손전등으로도 밝혀지는 곳이 아니면 어떻해?'

그러자 나는 확고한 말투로 말했다.*

'집부터 내지말고 우선적 움직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하면 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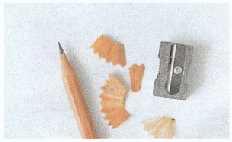
그러자 오늘이는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않아.'

이렇게 나도 만들레로 존재하는 오늘이에게 벗어나고 싶다.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다.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전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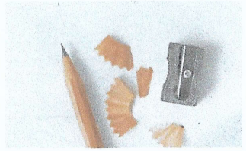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싶다. 누군가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얽메이지 않고 내가 하고싶은대로 살고싶다. 인간관계 속에서 원치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싶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만 계속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계속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신만 스트레스 받을거니까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혼자 다른 곳에 내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혼자고 아닌걸 알면서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때는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이'처럼 울고 싶었던 나에게는 울고 싶으면 소리내어 울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고싶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멘날 조금씩 흘리는 눈물보다 소리내서 우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나에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남을 말을 들다보면 계속 확신이 들었던 것도 다시 흑백자게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것같아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좀 나만 믿고 굳은 의지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것, 타인을 떠나서 나만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친경분들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항상 놀고싶고 공부는하기 싫었던 나에게 나는 대학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공부를 해야하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다는 아닌데 왜 공부가 왜 싫어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집을 찢고 다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다. 그래서 공부를 미룰대로 미루고 놀고 자기만 했던 내가 한심하였고 앞으로 뭐하면서 살아야될지 고민도 많이 했었다. 시험을 보고 성적이 안나올때 기분이 안좋고 더욱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앞으로 걱정해봤, 연심히 해야지 이러지만 딱히 잘되지가 않아서 나는 저렇나 고 울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나는 혼자 내면적적였다 고 가끔 생각한다고 했는. 앞으로 ~~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어떻게 이뤄야 하며 어떠한것을 노력해야 하는지 아직의 공부로써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것이다. 내가 이러한과정을 거쳐 내꿈을위한 목표를 달성 했을때 벅찬감과 행복함이 찾아올것이다.

아직의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게 나중에는 꼭이게 될다. 혼자 내면적적였던 나에게 나는 늘내곁에 나를응원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것을 깔려주고 싶다. 그리고 방황, 실패 하는 나에게 내가 간절히고 싶은것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과정속의 따른 꿈을 찾아두고 그길로 가천고 싶다. 그리고 올라올때 나에게 힘내고 할수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잘 견딜수있을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⑭ 학생14의 글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친깅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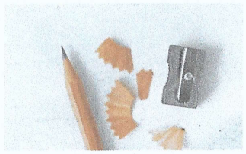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안녕 오늘아, 넌 또 공부를 안하니. 그래 뭐가 되려구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니. 공부 안하면 돈도 못버는데 왜 공부를
안할까. 여지껏 문이 좋았던 나쁠때도 문이 걸릴거라는 생각하는거니?
근데 난 그런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하지말고 좋아하는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남들 시선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더 계획없이
살아!!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경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redacted]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안녕 [redacted] 안녕 내 안에 있는 오늘아.
오늘도 수행평가, 숙제, 학교생활 … 을 하느라 힘들었지?
종종히 지금 넌 누구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깐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어깨 쭉 피고 살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멋지게 살아왔고
너가 제일 멋지게 살거야.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순간만
참으면 너에게는 꽃길뿐이야. 지금도 충분히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동생, 좋은 친구들이 너에게 있잖아? 모두 널 믿고 의지하는
만큼 너도 힘든 일, 좋은 일 모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아갈 필요없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 널 믿어. 세상 누구보다 부족함 없게 자라왔고,
어느 부모님보다 좋은 부모님에게서 자라면서 사고 한 번 안치고
바르게 커왔잖아 너.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널 좋아했잖아. 난 아직도 기억해. 그만큼 다 널 좋아해.
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야. 받은 사랑들, 너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힘내고 화이팅!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⑯ 학생16의 글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To.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안녕? 내 안에 있는 오늘아. 요즘에 많이 힘들지? 엄마랑 싸워서 힘들고 공부(대학), 꿈에 대한 압박 이런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계속 이겨내려면 좋겠어. 자꾸 힘들어서 나쁜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접고 이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찾았으면 해 너를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너는 너구 그 사람들 지나가는 바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내가 무섭거나 그리고 도망치는 듯한 같은거 있는거 같아. 이 습관 같은것 때문에 힘해 나 안좋은 습관이 생기고 너가 또 힘들니까 이 습관을 고쳐보자.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너가 힘들때나 우울할때에는 마음껏 울어도 돼 꾹꾹 안 참아도 되고 꼭 참는다고 좋은거는 아니니까 혼자서도 마음껏 울어도 되고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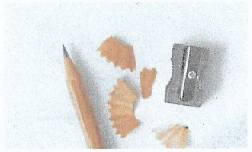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어릴적부터 많이 들었던 그말. '넌 그런애야' '쟤 싸가지 없어'
'넌 왜 그렇게 비지니?" 집착을 하지마' 잘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어릴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때 너는 어땠어? 많이 힘들고 눈물났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몰래가 안나고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해도 누구하나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서럽고 외로워 그래서 지금 너가 눈물을 잘 참는
것인지 몰라.
나는 내가 생각했을때 마이쭈 같은 사람같아.
손으로 만져보아도 입에 넣어보아도 처음에는 딱딱하잖아.
그래도 맛을 보면 사실 물컹컹 점조족 말랑거리고 ...
그래서 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
내가 여한테만 신경쓰지 않고 다른 친구를 보면
이 친구가 가버릴까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결국 끝은 모두 같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많이 단단해
진 것 같아. 그 이유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으니까
꼭 누가 없으면 외롭던 나도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내가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해
과거처럼 눈물나고 정말 힘들어 죽고싶을때 내 옆에
아무도 없던 시절보다 못하더 있는 내옆 친구들이 있는
지금 상황이 더욱 좋아... 사실 좀 마음이 공허하긴 해
지금도 물론 좋지만 나의 외로움을 다 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바라는 걸까?
그냥 단지 정말 밥 같이먹고 웃으며 보는것이 다인데...
요즘은 좋겠지만 마음이 공허해 벌집같아. 꽉차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것 처럼. 내가 잘해도 다들 떠나가더라고
마음을 주기 무서워 내 마음을 가지고 놀까봐
그래서 아직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한 것 같아.
그래도 힘들면 힘들다 말고 싶으면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못하는 내가 된지만 그리고 싶어
차곡차곡 살는 것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
앞으로 내 안에 있는 오늘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슬퍼하지 않고 항상 웃을 수있는 오늘이길 ...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지연아 이렇도 많이 아프니 저번까지만해도 잡자기 우울하고 저녁만되면 슬프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내가 내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하게됐어 왜냐면 우울할때마다 슬픈노래 들고 자해사진도 찾아보고 자해도해봤잖아 - 그런데 어느날 내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지금 내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왜이리 슬프고 죽고싶지 그래서 내 과거를 돌아봤어. 그랬더니 어릴때부터 외롭고 슬픈날들을 너무 오래 보내온거야 그래서 그 슬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서 슬퍼지는거야 근데 나는 이걸 남이 나아지게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그래 진심으로 항상 널 응원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줄 사람은 너 자신이야 내가 동물을보면 위로가된다면 나를 동물을 키워야하는거고 내가 개그를보면 우울한 생각이 안난다면 나는 개그를 봐야하는거야 근데 이건 내 우울함을 잠깐 잊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습관들을 점점 나아지게하려면 내 자신을 이해시켜야해 "너의 과거는 너무 아팠잖아 근데 지금 그 아픔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의 삶이 그리 슬프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슬퍼지는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아팠으니까 지금은 더이상 아프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서 너의 콤플렉스나 이런것도 좀 위로해줘 "너는 다른 사람말에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되고 지금 옆에 친구가 별 싫어하게 될까봐 참으면서 더 잘해주고 너 자신보다 먼저생각하지 않아도되 그런 보이지 않아 만약 그 친구가 등을 돌린다면 걔는 원래부터 네 옆에있으면 안되는 존재였던거야" 이런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시켜줘 □ 자기탓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자.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감분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나를 종종잘모를때가있다. 사실 종종이라기보다 거의 모를때가 많다.
어느날은 화가 많이나고 어느날은 너무나도 서러워서 미칠것같은 날이 잦다.
어느날은 너무 분해서 미쳐버릴것같고 어느날은 그래도 만족한것같아라고
더 활운내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있다. 나는 이건 내가 정말 당연한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휘둘리가는게 너무 싫었다. 어릴때부터 감수성이 많아서
잘 울기는것은 나에게 단점으로 다가온것이 컸다. 태내내면 어쩔수해 나는
많이 울어서 눈물을 빼았다. 처음 생각하면 전혀 슬프지고 마음로 쓰이지않아도
티비보게 이 장면이나왔을때 나에게 심쿵한장면 단점이라는 느낌이 너무 싫었고
내가 잘울기는 아빠하나로 나를 놀게보고, 나를 놀리는사람들이 미웠고 그래서저
일기를 써봤다. 그래서 그런걸까 나는 평소우는것보다 티나지만 다른 사람앞에서
우는것이 유난히 거부감이 들고 부끄럽기도하고, 감정을 내색하기 싫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면 꼭꼭 참고 마음속안 감춘것이 많아졌다.

체력도 좋지못하고 공부도 잘하지못하고, 모든것이 다마음처기 시작할때면,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또 내가 좋게해줄수있는것을 보았다.
나는 여태까지 나의 감정을 말하고 우는것과 나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여태껏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적들이
아주더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싫고 힘지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 내가더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수있을때로 돌아, 다른사람들을
돌아가고있다. 그리고 나자신을 사랑하기위한 방법들로 찾고있다.
나는 나를 마침내 사랑할수있을까? 그날이 온다면 난 매우 기쁠것이다.
지금이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곳 같지만 난 그곳에서도 살아갈수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인해 이 둘과 내면저깊은곳에서도 살아갈수있다.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지금도 그럴지만 여태 같이 힘들었지? 중2때부터 몇 개월째 지속되던 왕따에 몸욕감도 처보고 부탁도 해봤었지만 진심으로 널 이해해주었던 사람은 없었잖아. 그들에 믿었던 친구에게 걸레라 욕먹기도 하고 뒷통수도 맞았었고 같이 고생했었잖아. 우린 하나라며 내편이라며 얘기해주던 가족마저도 내가 큰제라며 날 고쳐서 그 애들에게 맞추려 했었고. 그들을 피해 선생님께 부탁하여 반을 짰은것 마저도 이기적이라고 평가가 남았고, 지울 수 없는 흉터로 생활기록부에 남아버렸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던 그 순간 마저도 믿었던 교회애들한테 배신 당했고. 그 길로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왔잖아. 나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주었지만 지금의 내가 행복해진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있지. 한편으론 미안하고 죄책감느껴도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는거잖아. 그 때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싶단 생각을 했었음에도 상담 받으며 이상한 애취급받고 전교에 소문이 나서 믿을 사람 하나없이 혼자 꿋꿋이 버텼잖아.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거고. 그 때 혼자 울지도 못하고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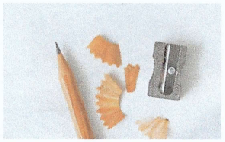
이제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걸 표현하고 위로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오늘이 처럼 혼자인 것 같았어도 난 정말 잘했다고 벌을 받는다며 합리화시키고 수긍하며 지냈던 건 과거일 뿐이고 버려야 할 과거야. 지금의 너에겐 주변에 좋은 사람도 가득하고 그 때와 다른 소중한 내편이 있어. 많이 외로웠지.

혼자란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을거야. 이제 절대 그런 생각 말고 행복할 일만 남았어. 어렸을이 기억에 남게 되더라도 이젠 혼자란 생각 없이 내주장 내 생각 당당히 펼치며 지내기로 하는거야.

멋진 두메도. 멋있는 취미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자.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생각보다 무책임하다. 내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 한번도 그 일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항상 주변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무조건 도움만 청하려고 한다. 이 감정은 정말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어도 보았고 정말 답이 없을땐 자해도 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한다고 당당하게 클 것인가' 였다. 그냥 하염없이 몸에 상처를 내면 결국 남는건 흉터밖에 없을텐데 지금도 흉터를 보면 힘들었던 생각보다 나지막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더 힘들었던 것은 자해하는 사람을 나쁜사람으로 본 것이었다. 나도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싫었다. 그저 많이 힘들었나 하루 스트가 풀고 싶었던것이 본인도 마저도 외면하게 버리니 큰 벽이 하나 세워진 기분이었다. 차라리 울면 마음이라도 편해졌지만 매일매일 울 수도 없고 그저 이 시간이 지나기기를 기다리다 선택한 수단이 이미를 확정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생각없이 행복하기만 했다.

내 안의 나에게

힘든거 알아. 많이 힘들지 하지만 이것도 잠시고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갈거야 지금은 버틸 수 없이 많이 힘들겠지만 분명히 또 행복한 순간들이 올꺼라 나는 믿어. 힘들땐 울어도돼. 아무도 뭐라하지 않아. 자신을 믿고 하고싶은대로 해봐서 살자. 내가 응원할게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나는 나를 종종잘모를때가있다. 사실 종종이라기보다 거의모를때가 많다.
어느날은 하기 많이나고 어느날은 너무나도 서러워서 비참한날도 있기 했다.
어느날은 너무 뿌듯해서 마치버려겠다고 어느날은 그래도 오늘은 참괜찮을거라고
더 힘을내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있다. 나는 이런 내가 정말 정상적인거라고
생각이들면서도 혼란스러가는게 너무 싫었다. 어렸을때부터 감수성이 많아서
잘 울라는것은 나에게 칭찬으로 다가온것이 컸다. 왜냐하면 어쩔수해 나는
많이 울어서 눈물을 많았다. 처음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마음을 쓰지않아도
되었는데 이 잘울라는것은 내게 정말칭찬이라는 느낌이 너무 싫었고
내가 잘울라는 이유하나로 나를 놓게보고, 나를 놀리는사람들이 미웠고 그래서저
입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걸까 나는 공황장애를 앓게되었지만 다른 사람앞에서
우는것이 유일하게 허락되게되었고 울고싶지않아서, 감정을 내색하기 싫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면 꼭꼭 감추고 마음속한 깊은곳에 묻어놓았다.

체력도 좋지못하고 공부도 잘하지못하고, 모든것이 다 마무리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또 내가 좋게해줄수있는것을 만났다.
나는 이정까지 내가 감정을 못하고 우는것이 나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랑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아주아주많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싫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내가되었고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수있는힘을 달라, 다른사람들을
돌아가고있다. 그리고 나자신을 사랑하기위한 방법을 찾고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수있을까? 그것이 온다면 난 매우 기쁠것이다.
지금이 칼림하고 아프고 힘든 곳 같지만 난 그곳에서도 살아남았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인해 이 혼자 내던져진것같은곳에서도 살아갈수있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1-2) (2-3)

2. 때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별종 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뱀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공부.

9월, 10월, 11월 고3 입시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돌아보면 담임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난 그 3달간을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며 서럽게도 울었던 것 같다. 아마 난 누군가 내 인생을 준비해주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크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하또 기쁨은 왜 공부를 하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고 목표 점수는 정해졌는데도 잠재적이지 못하고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지', '친구들이 도와주겠지'와 같이 안일했던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했던 것 같다. 모의고사를 점수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연이은 불합격 소식에 울어 버렸을 한 번이라도 웃은 것이 아닙고 또 아침까만 했다. 고등학교 고3년부터 3학년 까지의 생활과 가족이 모두 부정적으로 느껴지다 결국은 담임한 적 '기대 안했어'

'괜찮아', '수능 잘 보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슬프지만 표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민들의 좌절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학력고사와 예비소 그리고 아직 날아있는 기다림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지실진 조언과 친구들과 부모님의 응원으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더이상 관심이 없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음원해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좀 더 타인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 또 다짐한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대로는 '장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벌층탑'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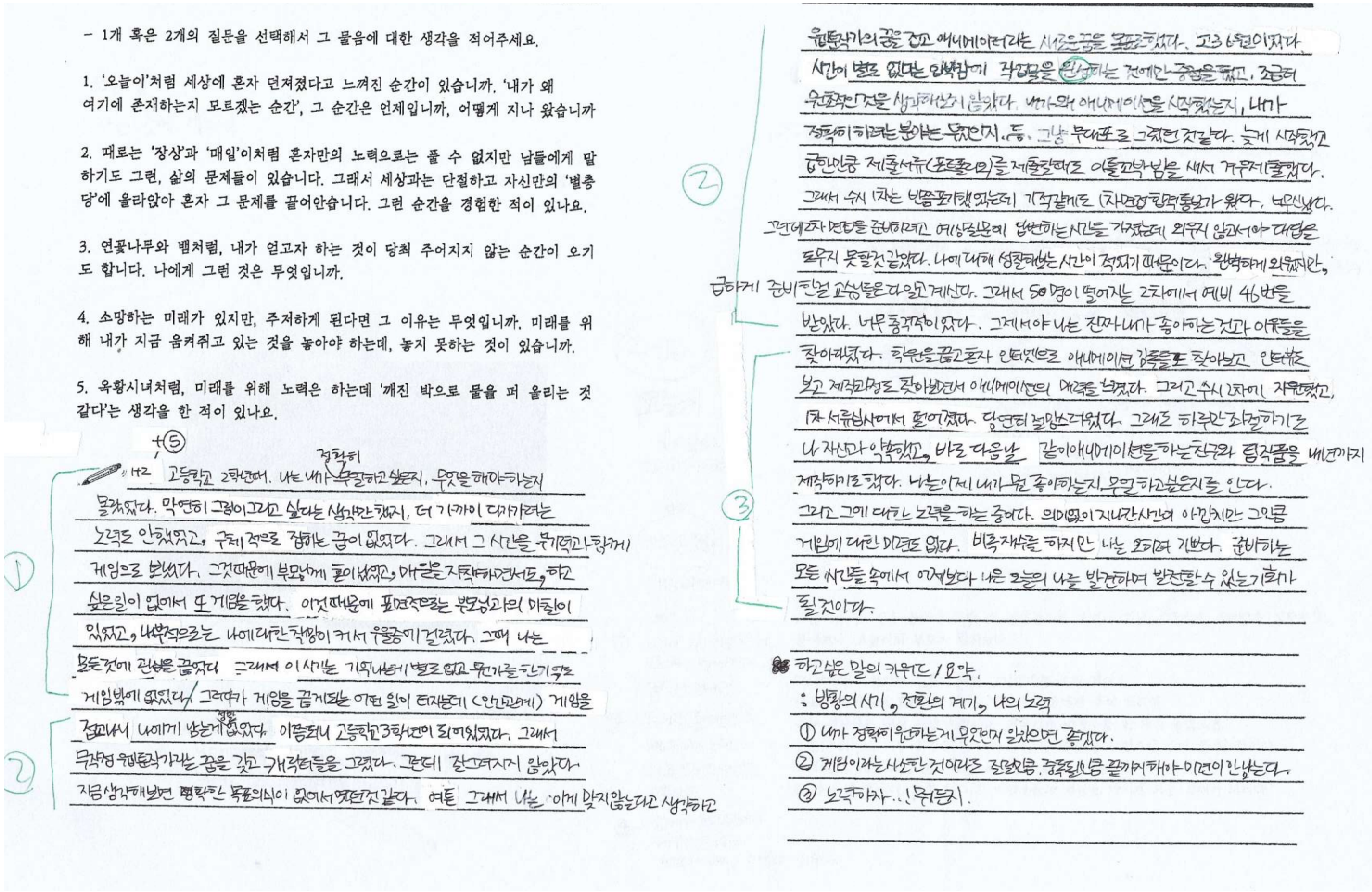
3. 연꽃나무와 벨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옥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3년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신 공부를 대 하고 있는지 ,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끝난 지금 고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것이 대학교 붙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학교를 통해 좋은 친구들 , 선생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추억들보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만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어느 대학교에 붙었는지에 따라 '재 공부 안 하고 놀았구나 ' 라고 평가 되는 것이 싫다. 대학교 하나로 그동안 노력한 것이 평가된다.

내 꿈은 유치원 교사이고 최종 목표는 아이들에게 나눔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결과로만 내가 평가되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보다 나만의 기준을 세워 이끌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 1개 혹은 2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오늘이'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지나 왔습니까

2. 때로는 '창상'과 '매일'이처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자신만의 '벌층당'에 올라앉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연꽃나무와 펠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최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4.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5. 욕황시녀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하는데 '깨진 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⑤

1-2 고등학교 2학년때.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몰랐었다. 막연히 그렇이그리고 살고는 싶었지만, 더 기까이 다가려는 노력도 안했었고, 구체적으로 잡히는 꿈이 없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의미하고 황거게 게임으로 보냈다. 그것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났었고, 매일을 자책하면서도, 하고 싶은일이 없어서 또 게임을 했다. 이것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나에대한 착망이 커서 우울증이 걸렸다. 그때 나는 모든것에 관심을 끊었다. 그래서 이시기를 기억내용이 별로 없고 뭐가를 하기 귀찮고 게임밖에 없었다. 그러다 게임을 끊게되는 어떤 일이 터지면(안좋은일) 게임을 끊고서 내에게 방황의 정황이 있었다. 이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막연한 웹툰작가라는 꿈을 갖고 캐릭터들을 그렸다. 근데 잘그려지지 않았다. 지금생각해보면 편학한 목표의식이 없어서였던것 같다. 여튼 그래서 나는 '아게 아닌가보다'고 생각하고 웹툰작가의 꿈을 접고 애니메이터라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고3 6월이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압박감에 작업물을 완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고, 조금더 유효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선생님께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는지, 내가 정확히 하려는 분야는 무엇인지, 등. 그냥 무대포로 그렸던 것 같다. 늦게 시작했고 급한만큼 제출서류(포트폴리오)를 제출할때로 어떻게든 내서 겨우겨우 통과했다.

2 그래서 수시 1차는 빅뱀포기했었는데 기적같게도 1차면접합격통보가 왔다. 너무 놀랐다. 그런데 2차 면접을 준비하려고 예상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외우지 않고서야 대답을 도무지 못할 것 같았다. 나에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외웠지만, 급하게 준비한걸 교수님들은 다 알아채신다. 그래서 50명이 뽑히는 2차에서 겨우 46번을 받았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닌것을 찾아내었다. 학원을 끊고 혼자 인터넷으로 애니메이션 강좌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제작과정도 찾아보려서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수시 2차에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당연히 너무 슬프고 우울했다. 그래도 하루만 좌절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고, 바로 다음날 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와 팀작품을 내년까지 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싶은지를 안다.

3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의미없이 지나간 시간의 아깝지만 그만큼 거름에 대한 미련도 없다. 비록 재수를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쁘다.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전보다 나은 모습의 나를 발견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싶은 말의 키워드 / 요약.

: 방황의 시기, 전환의 계기, 나의 노력

① 내가 정확히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② 게임이라는 사소한 것이라도 절실함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해야 미련이 안남는다.

③ 노력하자..!! 파이팅.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㉖ 학생26의 글

1학년 국어 학습지	<원천강본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마음 속 오늘이에게	2차시
1학년		
성취기준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내 안에 있는 오늘이에게"



방황해도 괜찮아 그것 또한 목적지인걸

목적지는 정해져있지않아 걸어가다가 너무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춰도 돼 그곳 또한 또다른 목적지이니

까 쉬고싶은 순간엔 쉬었다고 회복하고 싶다면

한숨쉬고 가고싶을때 고민하지마 우리가 어디에 있을

우리가 있는곳이 곧 목적지이니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Self-Expression Writing by Using Oral Tales
- Suggestion for a class using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Park, Yeon-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ealt with a problem that writing education is used as a functional and instrumental means in high school teaching fields. Although educational benefits from self-expression writing have been researched, actual teaching fields could not adopt it actively. In order to realize participatory and 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that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ursues, it should be needed to have specific discusses on how to compose classes. This study suggested a utilizing self-expression writing class by using oral tales, and it lead subjective writing and then further step to self-soothing writing.

High school students, who make detailed plans of an entrance examination and their course, have to internalize writing itself, as following contemporary demands. At that time, it is self-express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writing that helps to find their suppressed and lost things. Indeed, the self-expression writing exists as a chance to restore writer's subjectivity and lead healthy self-esteem, and it also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an aspect that it makes students shed light and reflect their values.

The reason why this study used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story is that, first, the surroundings of Oneuli, taking a trip to find 'who I am', look similar with contemporary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processes of the Oneuli has 'relationship' through 'meeting', adolescents, who worry about discovering their ego and how to mak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could find a motivation to travel for finding ego. Second, the 'weep of Oneuli' can make students recognize that sadness is a helpful process to become a new being. Actually, students were most immersed in a part that crying Oneuli showed sadness to a gatekeeper. They could have a chance to reveal and reflect their problems through naturally self-expression writing depending on flow of the oral tale.

Since a literatur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s reading-oriented teaching as emphasizing concept and content identification, the literature class leads students not to imagination and reasoning but to something cut and stuffed. Even though it is important for adolescence that various life emotion is being developed to cope with emotions, chances for that does not appear as well. The self-expression writing would be becoming an opportunity to recognize emotional causes they have and to releas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heir emotion itself, so that they could reflect themselves eventually.

This class conducted two-period classes with high school third graders in December 2018. Then, depending on feedback of that class, it complemented the class and operated the revised class for first graders in a high school in June 2019. This class is roughly separated into two activities. One activity is a process that students newly find their experiences and meanings as recognizing the meaning of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through questions of an activity sheet. Another activity is that students are going to 'write a letter to Oneuli who is crying inside'. This study composed the activity sheet, including content comprehension and self-exploration questions, so that it is to make students reflect self-exploration depending on text comprehension.

Then, at the activity of 'writing a letter to Oneuli who is crying inside', this study set a purpose that students confront problems of emotion and life that have to be released before moving to a step of reconciliation with oneself. As the results, they told themselves what they want to hear, acknowledged their problems, and expressed or embraced their internal awkward emotions. In common, they sometimes felt that they might be abandoned to the world lonely like Oneuli in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and they endured surroundings that only focus on the entrance examination without an opportunity to cope with their inside. Actually, students told 'they feel like they might be comfort' and 'they feel better'.

This study planed oral-narrative performance and a group activit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in order to prove that ‘a story’ could be a real thing even if it is not instructive. In the practice, high school students actively responded the story and found inside ‘Oneuli’ of them. For education not giving ‘answers’ but having ‘questions’, it should continue to conduct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t would be a task henceforth.